

Style **조선일보**

JULY 2024
vol. 271



TRINITY
Cartier



CHANEL

FINE JEWELRY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NEW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SPEEDMASTER MOONWATCH
Co-Axial Master Chronometer

OFFICIAL TIMEKEEPER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향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지안마르코 탐베리는 현재 세계적인 높이뛰기 올림픽 챔피언이며, 그는 최고의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한번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오메가는 모든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며, 공식 타임키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로 또 한번의 스포츠 역사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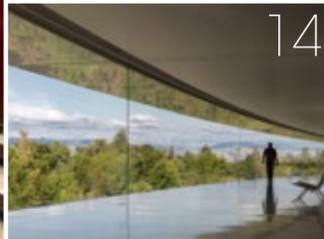
문의. 02 5280 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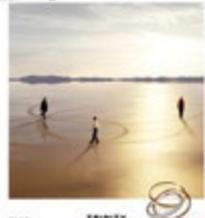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Yellow gold, pink gold, white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온라인 뷰티크. Dior.com



Style **조선일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카르띠에의 트리니티. 조화롭게 결합한 옐로핑크 화이트 골드, 3개의 링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대변한다. 가족, 친구, 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는 트리니티는 그 자체로 사랑과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문의 1566-7277

ART + CULTURE

44



46



42

38

ECOSOPHIA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서 멀어졌다. 자연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서 멀어졌다. 자연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서 멀어졌다.

- 12 **SELECTION**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시칠리아 정원, 그리고 따뜻한 여름 햇살과 잘 어울리는 서머 홀리데이 셀렉션.
- 14 **미래를 달리는 현실적 몽상가, 노먼 포스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선두 주자라 칭할 만한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이야기.
- 16 **'Do more with less'를 위한 여정** <미래공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 오프닝에 참석하지 못한 노먼 포스터에게 서면으로 간낸 질문.
- 17 **LIVING IN FOCUS**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집콕이 강제되기도 했던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부쩍 더 커졌다.
- 18 **THE GLORY OF VICTORY**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제의 장을 살펴. 초단위로 영광의 자리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오메가가 함께한다.
- 22 **LOVE BLUE** 여름날 청명한 무드를 선사해줄 블루 포인트 주얼리 & 워치.
- 23 **SPIRIT OF ARTISAN** 1837년에 창립된 에르메스 오브제에는 끈기와 인내심이 가득 담겨 있으며, 혁신적인 장인 정신이 가미된 무한한 결실이다.
- 24 **ABOUT FRAMES** 남다른 취향과 개성을 부여하는 뉴 아이웨어.
- 25 **COOL & LUXURY** 최고급 소재와 장인 장수를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
- 26 **GIRLS ON TOP** 승리를 위하여 새로운에 도전하는 도발적인 빅 패션 매치.
- 34 **SUMMER BREEZE** 향으로 기억하는 이 시절의 그 뜨거운 여름.
- 35 **EDITOR'S PICK** 피부에 휴식을 더해줄 이달의 뷰티템 13.

SPECIAL - ART + CULTURE

- 38 **자연에 오롯이 기대어 생각해 줘** 다 군위군 부계면에 10만 평(33만㎡)으로 자리한 사유원생태(源生臺), 한 가문의 집요한 애정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 42 **백색의 3중주** 해풍에 슬 향이 담겨 있는 곳 강릉, 그중에서도 '소나무'가 많은 고을(高嶽)을 찾았다.
- 44 **예술로 동시대와 공명하는 법**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 C의 스미스소니언 지하철역 앞 공터에 약 3m 높이의 조형물이 들어섰다.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한 역사일까? 보이지 않는 미래일까? 혹은 이 사회의 현재일까?
- 46 **부드럽게 일렁이는 변화의 바람** 미술계의 관점에서 올해 뉴욕의 봄은 좀 더 역동적이었다. 지난 3월 막을 올린 휘트니 비엔날레, 5월 들어서는 프리즈(Frieze)를 필두로 1-54, 나다 등 여러 아트 페어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문을 열었다.
- 48 **영화 속 예술, 예술 속 사유** 당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예술가를 조명하는 영화는 그날로 사유의 촉매제라 불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 50 **EXHIBITION IN FOCUS** 삶을 완성시키는 여정에서 마음의 안식처와 자양분이 되어줄 전시와 책 소식을 전한다.
- 51 **REMEMBER THE EXHIBITION**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출연이 어렵거나 떠나기가 여의치 않다면, 홈도 시원해지고 사이드 락 티가 만들어줄 수 있는 '아트 스페이스'를 염두에 둘 필요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막을 올릴 전시 콘텐츠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12

Style **조선일보**

Issue.271 July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영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chosun.com 아트 | 나는람파니
 교열 | 이정은 정경·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제작 |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재직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 사법실 인세 | 타라티파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erlée Watch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www.vancleefarpels.com - 1877-4128

SPEED OBSESSION

오메가의 유서 깊은 크로노그래프가 선사하는 디자인과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한 스피드마스터 컬렉션에서 크기와 컬러 등 새로운 심미적 요소를 접목한 스피드마스터 38mm 사이즈를 선보인다. 전체 플라싱 처리한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로 완성했으며, 5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상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라싱 처리 크라운을 장착해 남성은 물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브라운 PVD 다이얼은 실버 코팅 처리한 가로 형태의 타원형 서브 다이얼과 6시 방향에 위치한 세로 형태의 타원형 날짜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플라싱 처리한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아이마켓 핸즈는 빛을 발산하는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로 완성했다. 오메가 코-엑스컬 칼리버 33330으로 구동한다. 문의 080-500-1848



ARTISIC FLOWER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받은 영감을 섬세하고 환상적인 주얼리로 표현하는 반클리프 아펠에서 이번에는 꽃에 집중한다. 메종의 가장 상징적인 테마 중 하나인 플로라(Flora)를 파크레트(Pâquerette) 링으로 탄생시킨 것. 오렌지에 선보이는 새로운 노벨티 작품으로 데이지 꽃을 형상화했으며,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옐로 골드에 푸르고 알록달록한 꽃이 피는 여름 정원에서 영감받아 다양한 컬러의 장식용 스톤을 세팅했다. 꽃의 중앙, 줄기 등 모든 가지차리를 메종의 시그니처 모티프인 골드 비즈로 장식해 빛나는 광채와 둥근 디자인을 더욱 강조하며 메종의 색을 더욱 공고히 한다. 문의 1877-4128



어느 멋진 여름 밤

대운 여름밤 창랑과 낭만을 더해줄 상쾌한 선택. (위부터 차례대로) **파우에 주에 벨 에포크 로제** 모란과 장미 향을 시트로 산뜻함과 라즈베리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상쾌한 비블의 부드러운 질감이 조화를 이룬다. 750ml 5만9천원대. 문의 080-597-6432 **크루그 크루그 2011** 살구와 시트러스, 멜론, 감초 향이 아우라까지 얹은 스모크와 로즈메리 향이 깎아내려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우아한 맛.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아르망 드 브랑 발랑 드 누아인셀라주 No.4** 마멀랭 향을 시트로 블랙베리, 무화과, 자두 향이 퍼지며 미란샤노 체리, 딸기 콩파, 오렌지 블라썸 향이 이룬다. 전 세계 7천3백28명 한정 판매.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포도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정임**



GRACEFUL FEAST

가벼워진 옷차림에 싹뚫힌 포인트가 되어줄 다용도 파인주얼리의 새로운 컬렉션. 갈롱 디올(Galons Dior)을 소개한다. 디올 파인주얼리의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의복에 대는 금속과 은물 장식인 파스망트리(passementerie)의 세계를 재해석하고, 패브릭 조각에 대한 찬사를 갈롱 디올 컬렉션을 통해 보여줬다. 그녀의 손길로 아름답게 완성된 네 가지 디테일인 마외 뒤 시셀 갈롱, 플로럴 갈롱, 지그재그 갈롱, 진주빛 갈롱을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 이어링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피스들은 서로 교차하고 매듭 짓는 디자인을 기이하게 매력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문의 02-3280-0104



DAILY DEFENSE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여름 필수템. (위부터 차례대로) **시세이도 더 퍼펙트 프로텍터 SPF 50+ PA++++** 시세이도의 독자적인 기술 '스킨크리드™' 테크놀로지로 높은 온도에서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해 연한 피부 보호한다. 50ml 6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발몽 리스토링 퍼펙션 SPF 50 PA++++** 플라센 생성을 도와주는 실리시움 D2 콤플렉스 성분을 담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며 미니 사이즈로 휴대성까지 겸비한 자외선 차단제. 15ml 1만6천원. 문의 070-4352-5203 **에스티 로더 퍼펙트비스트 프로 데이-리크 디펜스 UV 밀크 SPF 50+ PA++++** 백탁 현상 없는 투명한 텍스처로 기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외선 차단 자유를 경험했다. 30ml 1만원대. 문의 02-6971-3212 **클리닉스 퍼펙트 UV 리미티드 스킨케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클리닉스 플라임 함유 세라미드 효과까지 갖춘 선크림. 30ml 1만6천원대. 문의 080-542-9052 **포도그래퍼 오연성** 에디터 **신정임**

CHARMING SNAKE

불가사의 상징적인 두 가지 상징을 결합해 탄생시킨 현대적인 감성의 세르펜티 투보가스 워치는 뱀이 손목을 감싸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의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뱀의 유려한 라인을 연상시키는 타일피스는 움직임 없이 유연한 튜브를 형상화하는 특별한 기법을 통해 탄생했다. 어떤 손목에나 잘 어울리는 35mm 사이즈로 로즈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화려한 멋을 더한다. 기요세 솔레일(Guiloché Soléil) 처리한 실버 오픈업 다이얼이 돋보이며,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02-6105-2120



FUN WITH CHECK

올여름, 가볍고 세련되게 들 수 있는 가방을 찾고 있다면 바버리의 로킹 홀스 백을 주목하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나 델라가 바버리와 스타 세계와의 오랜 인연을 그려낸 백으로, 어린 시절의 흔들 목마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과 스트랩을 통해 승마의 세계를 표현했다. 무엇보다 하우스의 새로운 모티브를 적용한 잠금장치와 가방 뒷면에 새겨진 기묘한 로고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블랙 루비 헤이즐 헌터 등 다양한 컬러 및 소재로 선보이며,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0798-44-341-257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자꾸만 손이 가는

가볍고 시원한 라미아 소재의 매력을 담은 뉴 백.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티지 카메라 백에서 영감을 받은 고급 세틀 구조 소재의 엑스트라 카메라 케이스 워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견본 사진과 부드러운 촉감의 미르메에 라미아 소재 미니 피카부 백 **유니버시티** **판디**, 문의 02-544-1925. 통기성이 좋은 라미아 소재로 끝난 느린 다룬 울타입 백 **4백만원 발렌티노 가브리엘라**, 문의 02-2015-4655 **포도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정임**

운명적인 만남

선망의 대상이자 도발적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 그녀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게 흘러간 것은 그녀의 운명을 바꾼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만난 이들과 그 인연 때문에 변화를 맞이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코 크러쉬 컬렉션이다. 둥근 화면에 새겨진 깔끔하고 균일한 절개 디자인이 특징으로, 각각의 피스에서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고 심플하면서도 밀도 높으며 부드러운 동시에 예지 있는 멋을 느낄 수 있다. 2024년 코코 크러쉬 컬렉션은 새로운 미니 브레이슬릿을 추가했다. 다이아몬드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옐로 화이트베이지 골드도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인비저블 회전 잠금장치인 코코 트위스트(Coco Twist)를 적용해 가볍게 돌려주기만 하면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더 슬림하고 가벼워진 만큼 기존 코코 크러쉬 링이나 브레이슬릿과 레이어드해 연출하기도 좋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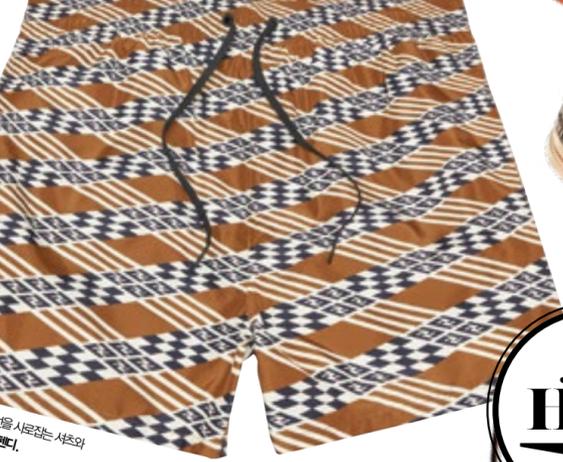
'바다 미감'을 품다

강원도 속초의 독특한 '바다 미감'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솔깃할 만한 소식이 있다. 모든 유형의 객실에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럭셔리 리조트 카시아 속초(Cassia Sokcho)가 지난달 문을 열었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호텔 & 리조트 그룹인 반얀 그룹(반얀트리 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선보였는데, 《월파이퍼》 선정 '주목해야 할 세계 건축가 20인'에 오른 김찬중 건축가가 디자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대지 면적 12,022㎡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 규모로 6백74개 객실을 갖추고 주방 시설과 프라이빗 발코니, 욕조가 모든 방마다 자리 잡고 있으며 곳곳에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가 포진하고 있다. 신선한 베이커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호라이즌' 카페부터 뷔페 레스토랑 '비스타', 애프터는 티와 바를 선사하는 '보스코', 그리고 26층의 루프톱 바인 '시엘로'와 그릴 레스토랑 '포고'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일파렌즈 스파', 간식식 시우나, 요가 시설과 인피니티 풀까지 갖췄다. 또 미팅과 연회 공간 등 행사 공간 5개와 가족 투숙객을 위한 '패밀리 라운지'를 비롯해 아이들에게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키즈 카페까지 두고 있다. 홈페이지 cassia.com/south-korea/cassia-sokcho 글 **고성현**



Selection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시칠리아 정원, 그리고 따가운 여름 햇살과 잘 어울리는 서머 홀리데이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심플한 디자인으로 대입으로 착용하기 좋은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3백만원대 사넬 확인 주얼리.

보통 실용적이지만 한 무드를 바꾸려는 아세시드 스타일의 메탈 프레임으로 어우러진 가죽 스트랩을 신랄한 3백만원대 코즈.

총 0.14캐럿 다이아몬드 3캐럿 노블을 장식하는 총 0.14캐럿 다이아몬드 3캐럿 노블을 장식하는 모노다이아몬드 세시드루 스텔 1백만원대 세.

총 47캐럿의 6개 파이로프 가넷을 세팅한 이크-카 아이젠 가격 미정 포멀리토.

두께감이 느껴지는 프렌칭이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연출하는 렌더 렌더 47만원 렌더.

카약30를 연상시키는 잇츠오른 실루엣을 자랑하는 유브 메제의 스웨터 크로세워 1백만원 렌더.

18K 아이 골드(Amor Gold®) 44.4mm 케이스의 포르투기저 파메주얼 캘린더 44 살바문 5천5백만원 IWC.

메종의 시그처 팬더 모티브가 특징인 카름피에 카르티비치 라켓 2개 세트 가격 미정 카름피에.

18K 옐로 골드 팬더 골드, 그리고 브론 PVD의 조이 특징인 쿼트로 메탈리 라지 투 코드 밴드 1천5백만원 뷰티.

유트 있는 프렌칭이 사선을 시로잡는 서츠와 수염 팬츠 21백만원대 렌더.

볼리바르의 조지오로 단편 강을 차이는 라 비에르 스타일 1백만원 뷰티.

가슴 아래까지 길고 넓어 부풀어 오르는 100% 코튼 소재의 캔버스 블러바, 42x28cm, 9백만원대 메트로.



감각적인 프렌칭을 가미한 라벤 소재의 크라스타나 점프 슈트 6백34만원 로로피아나.

1캐럿 다이아몬드 3캐럿 노블을 장식하는 모노다이아몬드 세시드루 스텔 1백만원대 세.

백랍에 3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핑 골드 케이스를 더한 빅뱅 컬렉션의 골드 워치 다이아몬드 4천2백만원 워블로.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그리고 로즈 골드의 조합이 우아한 무드를 강조하는 트리플 스파이럴 패메 다이아몬드 링 1천5백74만원 그라프.

맹안 홀리데이 눈썹을 시로잡는 3캐럿 가넷 목걸이 150만원 로로피아나.

감성적인 프렌칭이 해산은 물론 일상에서도 우아한 무드를 부여할 여성 프론트드 맥사카트 가격 미정 폴 스파.

어떤 여행지에서도 가볍게 메기 제작인 리피아 호프 텍스타일과 카프 스킨 소재의 뮤지엄백. 31x39x12cm, 2백56만원 셀린느 옴므.



1

미래를 달리는 현실적 몽상가, 노먼 포스터

서울이 이제는 전 세계 건축 거장들이 경쟁을 펼치는 유력한 무대가 되었다. 헤어초크 & 드 피롱, 리처드 마이어, 구마 겐고, 토머스 헤더위 등 웅망한 네임 밸류가 아니고서는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정도다. 세계 건축계가 주목하고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흥미롭게 바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혁신과 새로움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인지 스스로 되묻게 된다. 허물고 또 세워지는 것이 건축의 본질이지만, 진짜 지속 가능한 건축에 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실천적으로' 찾아온 건축가를 본 적이 있었던가. 준공 이후뿐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탄소 배출, 사용 에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건축가가 있었는가. 그래서 도시의 풍경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가 더더욱 남다르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하이테크 건축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한' 건축의 선두 주자라 칭할 만한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이야기다.



2

서울시립미술관(SeMA)의 올해 전시 의제는 '건축'이다. 서문 본관에서 열린 전시 (미래금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가 그 모문을 열었다. 긴 줄을 서서 입장해야 할 정도로 전시가 인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관 시간에 맞춰 서둘러 출발전했다. 다행히 기다리는 수고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시장 입구부터 관람객이 분해서 전시품을 한눈에 보려면 안내원이 조금 필요했다. 국내에서 커리어 전환을 다룬 사적이라고는 대안 서적(Deyan Sudjic)의 번역서 정도뿐인 영국의 노장 건축가에게 이렇게 많은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는 모습이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다. 작년 파리 폼피두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가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서울 전시가 파리 전시를 보지 못한 이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거라는 기대 때문일지는 모르겠다.

팔자가 처음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건축물을 마주한 것은 20여 년 전 여름, 유럽 배낭여행 중 런던에서였다. 당시 런던 시청이 완공된 시기였는데, 고풍스러운 영국식 건물들과 하늘로 솟은 현대식 빌딩 숲 사이에서 마치 무덤밭처럼 동글게 기울어 있는 유리 건물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기억이 있다. 독특한 형태와 곡선 유리로 감싼 건축 기술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것이 시청 건물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런던에는 런던 시청을 포함해 밀레니엄 브리지, '가킨' 빌딩(공식 명칭은 30 세인트 메리 액스), 웰리스 빌딩 등 노먼 포스터의 손길 이 닿은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포진해 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프리츠커상(1999년)을 비롯해 전 세계 온갖 건축상을 휩쓸며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에서 'lord'라는 직위를 받은 입지적인 인물로, 그가 얼마나 영국의 자원으로 추앙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3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첨단 건축

노먼 포스터는 193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맨체스터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예일 대학교에서 만난 동료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하이테크 건축의 시발점)라 할 수 있는 폼피두 센터를 렌초 피아노와 공동 설계했다), 윈디 치즈먼과 함께 1962년 팀 4(Team 4)를 결성해 당시 첨단 기술과 혁신적 디자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주목 받았다. 이후 포스터는 윈디 치즈먼과 함께 포스터 어소시에이츠(Foster Associates)를 창립했고, 이는 훗날 2천 명이 넘는 국제적 규모의 건축 스튜디오 포스터 + 파트너스(Foster + Partners)로 성장한다. 포스터 + 파트너스는 개별 건축에서 도시 설계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표작인 예로, 20년 전 완공된 거린 빌딩은 프로젝트 초기에 독특한 형태 때문에 '에로틱 거린'이라



4

1 부지의 80%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애플 본사 사옥(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파티노) 애플 파크 내부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9천여 그루의 나무가 연간 2백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Nigel Young / Foster + Partners 2 1929년에 개관한 독일의 쾰른호하우스 미술관은 2000년대에 들어 포스터 + 파트너스가 리모델링을 맡아 새 모습을 거듭했다. 파란색 양식의 기존 건물의 외형을 보존하고 새로운 전시 동선으로 공간을 확장했다. © Nigel Young / Foster + Partners 3, 8 노먼 포스터는 2012년에는 유한우주국(ESA)과 달 거주지 프로젝트를, 2015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화성 거주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찍이 지구 밖 거주지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는 달이나 화성의 자연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자체 이동보다 자율 로봇이라는 수단의 이동에 비중을 뒀다. 3번 이미지 © Foster + Partners, 7번 이미지 © ESA / Foster + Partners 4 카타만 타이머 형태의 애플 파크는 독특한 형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혁신적인 건축물로, 기존 부지 건축의 자재 90%를 재활용했으며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한다. © Steve Proehl 5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아부다비 제2도 국립박물관은 높이 솟은 5개의 경망 스틸 구조물이 태양열을 활용해 에너지를 내는 굴곡 역할을 한다. © Foster + Partners 6 1870년에 설립한 보스턴 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존 보좌관 양식 건물을 복원하고, 현대적인 '크리스탈 스파인(Crystal spine)' 유리 구조물을 결합했다. © Nigel Young / Foster + Partners 7 아부다비 도시에 서 17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마스더브스타는 탄소 중립 및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포스터 + 파트너스가 마스터플랜을 맡았다. © Nigel Young / Foster + Partners



5

대중의 조롱 섞인 이유를 받았지만,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재정의하며 현대건축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런던 최초의 환경친화적 마천루로, 이 건축물로 노먼 포스터는 영국왕립건축가협회로부터 스틸링상을 수상했다). 어떻게 지면 형태의 건축 설계와 시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노먼 포스터라는 이름에는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뉴욕의 포스터모더니즘과 함께 등장한 하이테크 건축은 고도의 기술과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해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통적인 건축의 규칙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특징으로 하며, 강철, 유리, 콘크리트 같은 현대적인 소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서는 하이테크를 넘어 더 넓은 의미에서 그가 빈틈없이 추구해온 건축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노먼 포스터는 60여 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친환경 건축의 선구자로,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발전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건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그는 건축이 건물 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인 사례로 1971년 거대한 돌 안에 자연과 사무실을 결합한 '기후사무소(Climatrotice)' 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 하늘을 연상시키는 개관 지오데식 돔(다면체로 이루어진 반구형)의 유리 외피, 건물 내부에 조성한 공유 정원 등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의 이상을 제시했다. 또 1975년에는 노르웨이 산박 회사를 운영하는 프레드 울센의 의뢰로 스페인의 고메라 섬에 자율 에너지 시스템, 폐기물 재활용 등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관광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일명 고메라 지역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비록 연구로 그친 프로젝트였지만, 이후 포스터 + 파트너스의 많은 작업 DNA가 이때 형성된 것이 아니까 싶다.



6

현재 포스터 + 파트너스는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거주 중 사용하는 운영 에너지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 필요한 내재 에너지를 파악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조율한다. 개관한 지 10여 년이 지난 애플 파크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결합을 보여주는 포스터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리게 한 프로젝트일 것이다. 획기적인 디자인에 걸려져 있던 애플 파크는 기존 건물의 건축 자재 90%를 재활용하고, 부지의 80%를 녹지로 조성하며,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하는 등 건강한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집중된 건축물이다. 스티브 잡스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울 만큼 이 프로젝트는 애플이린 브랜드의 혁신성만큼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를 꿈꾸다

포스터 + 파트너스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접근 방식은 지역 전통에서 배우고, 지형과 기후를 조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인 생태학적 문제와 인프라 과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확장된다. 최첨단 기술을 바꾸려는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노먼 포스터는 "기술만으로는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풍수 사상을 설계에 반영한 홍콩 상하이 은행(HSBC) 프로젝트 사례처럼 단순히 건축 설계가 아

닌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 그의 건축은 때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오래된 건축에 현대적 해석을 더한 '레트로핏(retrofit)' 접근을 통해 낡고 녹슬고 허물어진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역시 앞서 말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맥락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을 확장하고 개조하는 행위는 더 넓은 맥락에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동시에 역사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작업이다. 한때 서울에서도 유행처럼 번졌던 재생 건축과 개관은 비슷하지만 노먼 포스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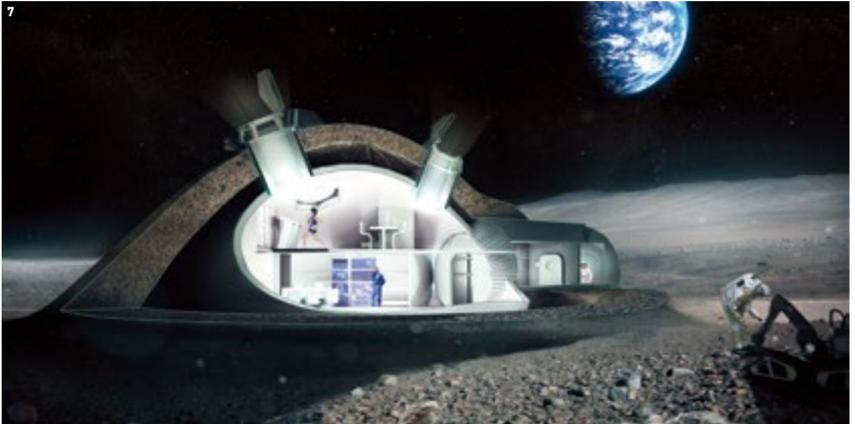
현재 포스터 + 파트너스는 스페인에 있는 발비오 미술관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45년에 세워진 건물의 원래 입구 위치를 다시 실려 미술관 전면에 도시 쪽을 향하도록 설계해 예전의 건축적 요소를 다시 부각하면서도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시 공간을 밝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천하고 있다.

전쟁과 재건축으로 훼손되었던 독일 국회의사당도 1999년 노먼 포스터의 제안에 따라 새롭게 탈바꿈한 사례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으로 정면과 곡면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국민이 의회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투명화 유리 돔을 만들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과 식물성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94% 줄였으며, 사용 에너지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노먼 포스터의 건축 철학은 단순히 독특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밖 행성에서의 미래 건축도 내다본다.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 어쩌면 이번 행성에서 이를 수 없을 거라는 달과 화성 거주를 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상상하고 있었다. 이렇듯 노먼 포스터는 건축이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믿으며, '새로운 개념의 건물을 설계하거나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낙관주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 제목 미래 긍정(Future Positive)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한 그의 작업들을 통해 건축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그리고 단순히 건축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글 김민서



8



7

Interview with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Do more with less’를 위한 여정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마름모꼴 그리드의 차분하면서도 경쾌한 리듬, 유리과 금속을 활용해 빛어내는 매끈한 표면과 세련된 구조미, 열린 공간과 효율성 돋보이는 서비스 디자인. 바천루와의 열애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세계 우수 도시의 풍경을 자신만의 스타일과 방법론으로 수놓는 노먼 포스터의 건축 세계는 방대하고 다채다듬하며 놀라운 정도로 기술적 역량이 빼어나다. 그래서 ‘하이테크 건축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히 말한다. 기술은 문명의 일부이고, 반기술적인 태도야말로 건축과 문명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기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는 진보성, 그리고 창의적 감성을 동시에 발휘하며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그의 역량을 보면 과연 ‘동시대적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곱씹어보게 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공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 전시를 보며 떠오른 질문들을 지난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노먼 포스터에게 서면으로 건넸다.



Q 전시에 선보인 영상 중 포스터 + 파트너스가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Norman Foster(이하 NF):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도시 마스터플랜부터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열 기지 추적, 지역사회의 미치는 영향, 에너지와 탄소, 이동성과 연결성, 자원과 순환 경제, 물, 토지와 생태, 사회적 형평성, 회복 탄력성과 변화를 위한 전략,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영에 발생하는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면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이 제조조달건설 과정에 숨겨져 있음을 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내재 탄소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운영 에너지와 내재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총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측면에서 탄소 함량을 줄이고, 설계, 건설 및 사용 기간 동안 내재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종 탄소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문화, 환경, 지속 가능성 등 거의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건축 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론이 있는지? NF: 이제 건축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재 시점에 특히 중요하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제 작업 방식은 ‘분석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조직이든 기계 시스템이든 그 작동 방식에 호기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 않고 항상 더 깊이 탐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요. 우리는 전문 연구 유닛과 강력한 엔지니어링 팀을 포함한 진정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총 인원수는 약 2천 명으로, 6개의 작은 스튜디오로 나뉘며, 이는 제가 주재하는 디자인 위원회가 감독합니다. 이 조직 모델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이점과 개별, 작업실 등 공동 시설과 기본 연구 투자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대규모 조직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죠. 런던 리버사이드의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 있는 스튜디오의 모함(mothership)으로, 대학 캠퍼스보다 더 가까운 정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Q 건축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된 특정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NF: 1960년대부터 동료들과 함께 개척해온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회기술적 변화를 수용하며, 업무 공간, 교통 건물, 공항 터미널과 같은 건물 유형을 재발명하고 역사적 구조물을 재활용하는 등 기존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1960년대에 건축 실무에 입문했을 때, 처음 이 행성의 취약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1962년에 출간된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은 화학



살충제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했고, 우주 비행사들이 1968년 찍은 지구 동이 사진으로 지구의 보호 대기가 매우 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건축적 대응을 모색하며, 토지와 에너지와 같은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에 익숙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으며 지금의 현실을 예견한 것이었죠.

Q 한국타이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재료를 맞닥뜨렸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NF: 한국타이어의 R&D 센터인 테크노돔(Technodome) 디자인은 고도로 제어된 실험실 환경부터 유연한 회의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을 간접하고 상징적인 형태에 담고 있습니다. 주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인접한 기숙사를 난방하는 데 사용되며, 남쪽 입구에 있는 호수는 빗물을 모아 방안에 활용합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새로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도 설계했죠. 이 건물은 회사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지원하고 역동적인 사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비전을 상징하는 여러 주제를 담고 있어요. 건물 외관은 자연광의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고, 우리 루버는 밀도를 다양하게 해서 건물 주위를 둘러싸 실내 조명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공용사회적 공간은 밝고 편안하게 설계한 반면, 작업 공간은 자동형 인공 조명 시스템이 보완된 엄격한 조명 제어를 적용했습니다. 외관은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반응해 독특한 시각적 정체성을 부여하죠.

Q 이번 전시에 소개된 프로젝트 중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나요? NF: 런던의 블룸버그 본사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런던 중심부의 도전적인 역사적 장소. 즉 영국 은행, 세인트 폴 대성당, 세인트 스톨은 율리우스 교토 근처에 위치하면서도 브리엄(BREEAM) 최고 등급인 ‘Outstanding’을 받았으며, 주요 오피스 개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종 단계 점수인 99.1%를 기록했습니다. 형태, 배치, 재료 면에서 그 장소와 시대에 맞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공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도시의 연장선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로마 미트라 신전 유적을 원래 도로보다 7m 아래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견고하지만, 내부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변화하죠. ‘보텍스(Vortex)’라는 복층 공간은 3개의 기울어진 곡선 목재 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동으로 덮인 하이퍼트로코이드(hypotrochoid) 램프가 건물 높이를 따라 루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외관은 사람 프레임과 바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 창을 그늘지게 하는 대형 청동 지느러미로 정의됩니다. 이 지느러미들은 방향과 태양 노출에 따라 크기와 각도가 변화합니다. 건물의 자연 환기 시스템으로, 공기를 끌어와 내부를 통과시킨 뒤 다시 외부로 배출해 환경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철저한 연구와 모델링을 통해 달성했습니다.

Q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과 사회적 요소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NF: 환경적, 사회적 혁신을 기술적 혁신과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일 통일 후 새 의회 건물인 라이히슈타르크 건물이 좋은 예입니다. 대중을 상징적으로 정치인 위에 빼놓지 않고 민주적 공간을 만들고 베를린의 파노라마를 줄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죠. 실제로 1999년 개장 이후 4천4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의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려 사항이 진정한 디자인의 원동력이죠. 라이히슈타르크는 지속 가능성의 선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역 에너지의 조합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때 거대한 오염원과 에너지 소비원이었던 이 건물은 완전히 변모했죠. 탄소 배출량은 연간 7천 톤



1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b. 1935)의 건축 여행에서 큰 영향을 받은 기숙사부스(Simetroffice, 1971) 모형. 그는 30대 시절 스튜디오 미트라에서 만난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와 함께 자연과 사후성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돔 안에 결합된 기숙사부스를 구상했는데, 인공 하늘을 연상시키는 돔의 투명한 유리 외피를 통해 하늘을 잘 관찰할 수 있고, 내부의 공유 공간은 나무와 초목을 통해 미기후를 향상하는 식의 산구적인 아이디어가 논점을 끈다. 일부 아이디어는 포스터의 수작으로 공하는 알리스 패머 & 윌리엄 본사 프로젝트의 초기 스케치에 구현되기도 했다. 기숙사부스 모형은 서울시립미술관(SOMA) 서소문 본관에서 진행 중인 <미래공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에 전시되어 있다. 2 2천 명이 넘는 인력을 거느린 국제적 규모의 건축 스튜디오 포스터 + 파트너스(Foster + Partners)를 이끈이온 영국 건축 거장 노먼 포스터. Photo by Carolyn Djanogly 3 한국타이어 기업발전센터의 핵심인 테크노돔 모형. 대전 유성구 대덕구지구에 세워질 테크노돔은 포스터 + 파트너스가 프로젝트를 맡아 비좁은 건축 자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태양광, 지열, 빗물 등 자연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환경을 구현해 국제적 친환경 건축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는 건축 모형, 드로잉, 아이아트, 영상 등 3백여 점의 선반이 502坪의 대표 프로젝트를 다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획전으로 오는 7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에서 4백40톤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 이 건물은 에너지 순생산 건물이 됐습니다.

Q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미현실화된 프로젝트 중 가장 아쉬웠던 사례가 있습니까? NF: 1970년대 초반에 미래의 작업 공간인 기숙사부스를 설계했습니다. 나무와 시멘트 및 석인 층간층 바닥으로 넓게 유리를 둘러싸서 직접적으로 쬐는 내부 미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미국 생물학자이자 자연주의자인 에드워드 O. 윌슨이 바이오피리아(1984에서 인간이 자연 세계와의 연결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을 밝히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1960년대부터 건축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기숙사부스는 미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현대 건축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맥시코시티 공항 터미널 설계에서 시도했던 요소들을 반영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취소 비용이 완성하는 데는 비용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Q 전시 제목처럼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래 건축의 핵심 요소를 꼽는다면요? NF: 1960년대에 스튜디오를 창립했을 때부터 궁정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의뢰로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철학에서 비롯했으며,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을 한 뿌리를 두고 있고 있지. 첫째는 전체론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식, 둘째는 환경 인식으로, 이는 현재 녹색운동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철학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철학은 맥을 같이하며, 두 흐름은 작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도시 차원의 설계 작업에 임할 때, 가계별 희망과 낙관주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긍정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개척하고 사회적, 기술적 기회를 수용함으로써 관습에 도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직면한 도전 과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이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티뉴 김민서, 고성연

건축에 감동이 없다면 그저 건물만 있을 뿐이라고 했듯 내부 역시 감성이 없다면 그저 건조하거나 번잡스러운 공간에 머무를 수 있다. 아름답지만 실용성은 떨어지기도 하고, 빈틈없이 갖춰져 있는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공간 꾸미기의 아이러니다. ‘비움’과 ‘채움’의 조화에 대해 개성 어린 ‘결이 스며드는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집콕이 강제되기도 했던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부쩍 더 커졌다. 이런 흐름을 타고 라이프스타일 감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양한 유형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다.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다, FENDI Casa



지상 최대의 축재라 칭해지는 ‘살로네’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가구 박람회와 가 본 이들은 아마도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인테리어 컬렉션의 화려한 쇼케이스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유의 창조적인 디자인 DNA를 집약하되 영역을 확장해 라이프스타일의 대체로 면면을 이루는 종합적인 제안을 하는 브랜드를 반영하는 풍경이다. 그중에는 의외로 이 계통에서 자부심 갖든 업력이 꽤 축적된 브랜드도 있는데, 얼마 전 서울에 플래그십 매장 강남구 논현로 713을 처음 연 펜디 까사(FENDI Casa)가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펜디의 홈 컬렉션인 펜디 까사의 탄생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예술적 감성과 섬세하고 울퉁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패션 하우스를 이끌던 안나 펜디의 발상으로 이뤄졌다. 세월이 꽤 흐른 지금, 펜디 까사는 여전히 정수를 지키고 있지만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도 일구었다. 하

로스 B&B 이탈리아 그룹과 펜디가 2021년 손잡고 FF 디자인을 창립해 펜디 까사 컬렉션을 개발하며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힘썼고, 실비아 벤추리니 펜디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 “한동안 큰 변화가 없던 펜디 까사의 라인업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상징적인 베스트셀러 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지. 실비아씨가 이 일을 아주 즐겁게 변화를 이뤄내고 있어요.” 펜디 까사를 이끌고 있는 CEO 알베르토 다 파사노(Alberto Da Passano)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로 한 체제에서는 외부 디자이너와의 협업 비중이 훨씬 커져(참) 최신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마르셀 반더스, 이탈리아 오이, 토안 응우옌 등 쟁쟁하다. 실비아 벤추리니 펜디는 상업 패션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능을 키워내는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온 인물인 만큼 이 두

분가를 어떻게 조화시켜 변화해나갈지 주시할 만하다. 럭셔리 패션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파사노 CEO는 “로고는 덜 드러내지만 패션과의 창의적 연계도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다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며 고객 기반을 확장해가고 있지만 우선적인 타겟은 단연 펜디 애호가라고 강조했다. 탄탄한 고객 층이 있기에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두오모를 독점 파트너로 둔 펜디 까사의 서울 공간 역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공들인 모습이다. 372㎡(약 1백12평) 규모에 2개 층과 루프톱으로 구성된 펜디 까사 서울의 인테리어는 대분히 현대적이지만, 2개 층에 걸쳐 있는 대형 통창에는 브랜드의 근원지이기도 한 로마의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아치를 둘러 LED로 은은하게 빛내도록 했다. 파사노 CEO가 “두오모가 멋지게 해 냈고, 그냥 (원래) 우리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펜디 까사 서울에는 깜찍한 페(tur) 쿠션부터 좀처럼 앞어가기 싫어하는 ‘그루브 앤 그루비 입체어’, 펜디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루이스 폴슨으로 구성된 가구 등 대체로는 구성의 홈 컬렉션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오프닝을 기념해 펜디의 스테디셀러 ‘피카피’ 핸드백에서 영감을 받은 ‘피카시(Peekasi)’ 입체어의 서울 에디션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펜디와 펜디 까사의 풍부한 문화 예술적 자산을 꽤 오래 접해온 필자로서는 아찔지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심도 있는 ‘진시 콘텐츠’를 기대하게 된다. 파사노 CEO는 “내년이면 펜디 창립 100주년이기도 하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지원사격을 할 의사는 남긴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글 고성연



영화인들이 사랑한 디자인 아이콘, 피에르 폴랭

뉴욕 현대미술관(MOMA)부터 런던 빅토리아&앨버트(V&A) 뮤지엄 등 세계 우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수많은 영화감독들이 스크린에 등장시킨 전설적인 가구 컬렉션을 빛낸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폴랭(Pierre Paulin, 1927~2009)의 작업물 대체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종종 꼽히는 ‘팅 체어(Tongue Chair)’부터 구름을 떠올리며 만들었다는 ‘파샤(Pacha)’ 라운지 체어, 레스토랑의 접힌 법칙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리본 체어’ 등 대표적인 가구는 물론 1970년대 조르주 폼피두 대통령령 개인 공간을 장식한 ‘알파 클럽 컬렉션(Alpha Club Chair)’도 볼 수 있는 전시다. 오피스 가구 회사로 유명한 허먼 밀러와 함께 주 거 단지를 위한 ‘볼링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건축가, 디자이너이자 조각가이기도 했던 그는 ‘가구런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결합 없는 기능적 조각 작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특한 미적 오라 덕분에 그의 작품들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다(정작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홍보를 일절 거부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영화 나사리즈들에 등장했던 폴랭의 가구들(리본 체어, 텅 체어)은 SF적 소재로 다가를 시간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오브제로 화면을 압도했고, 이후에도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한 리본 체어, 최근 <버비>의 주인공 마교 로비가 앉은 ‘오스카’ 소파 등으로 여전히 영화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피에르 폴랭의 아들 벤자민 폴랭이 주최한 이번 전시의 국내 조력자로는 폴랭의 팬인 배우 이정자가 함께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rendezvous@paulinpaulinpaulin.com).

전시 기간 9월 8일까지, 이태스코트파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대로 430)



알파 클럽 체어(1972)



덴마크 모더니즘을 이끈 전설, 폴 케홀름

핀 울, 한스 웨그너, 아르네 야콥센 등과 함께 덴마크 가구 디자인의 황금기(1945~1975)를 수놓은 폴 케홀름(Poul Kjaerholm, 1929~1980). 당시 목재 중심이었던 덴마크 가구 시장에 스틸 컬렉션을 제시하며,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 신을 새롭게 열었다던 그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북유럽 디자인사를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디자이너다. 신체적 기능부서 설계가 가능하지, 재료와 공법의 선택을 철저한 작업의 규칙으로 삼았던 그는 스스로를 ‘가구 건축가’라고 생각했다고. 대표작인 의자 PK25는 한 판의 스틸을 구부려 만든 세련한 악기, 혹은 건축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도의 정교함과 스틸 소재 프레임에 갖춘 이 의자를 보고 단숨에 매료된 프리츠 한센은 바로 그를 소속 디자이너로 채용하기도 한다(PK25를 시작으로 폴 케홀름의 가구 컬렉션 PK 시리즈가 이어진다). 이때의 인연으로 폴 케홀름의 가족은 케홀름 컬렉션의 제조와 판매를 프리츠 한센에게 위임한다. 프리츠 한센은 지금까지 폴 케홀름의 정교한 제작 방식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부터 한국에서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첫 단독전을 열고 있다. 덴마크 모더니즘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가구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구조를 만든 디자이너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예전대 PK0, PK22 같은 제품의 요소를 분해하고 해체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글 김진희(프랑스어, 덴마크어, 독일어)
전시 기간 7월 7일까지, 유스퀘어(서울시 중로구 호서동 25)



The glory of victory

모든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제의 장 올림픽. 초 단위로 영광의 자리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오메가가 함께한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특히 기록 경신과 메달의 영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선수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임과 동시에 기록을 경신하고 메달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만을 위해 그동안 실력을 갈고닦은 선수들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1만분의 1초 차이로 메달의 색이 달라지고 신기록 경신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오메가는 1932년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서 승리의 순간과 영광을 함께해왔다. 1932년 이전에도 오메가의 이름은 정확성의 대명사였다. 워치업계에서 다이버 워치나 문 워치 등 각종 워치메이킹 기술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스포츠 타임키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쌓을 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워치메이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던 오메가는 1932년 10분의 1초 단위까지 계속할 수 있는 크로노미터를 개발하면서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다. 이후로 오메가의 이 기록을 깨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오메가의 워치메이킹과 시간을 측정하는 데 얼마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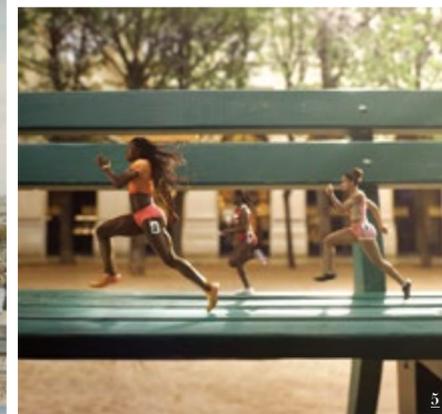
일렉트릭 셀(The Photoelectric Cell)부터 오메가를 오랜 시간 공식 타임키퍼로 있을 수 있게 한 터치 패드까지, 특히 이 터치 패드는 특히 수영 경기에서 광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다. 육안으로 승부를 가리기 힘든 수영 종목에서 선수 자신이 벽을 침과 동시에 시간이 기록되는 터치 패드라는 장치가 개발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육상 선수의 출발 시간을 측정하고 부정 출발 여부를 알려주는 스타팅 블록, 레이저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출발 신호를 들 수 있도록 고안한 라우드 스피커, 초당 1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스캔 오비전 미러 포토퍼니시 카메라(Scan O Vision Myria Photofinish Cameras), 100만분의 1초의 해상도 해상도를 갖추고 최대 오차가 100만 초 중 1초에 불과해 5배 더 정확해진 오메가의 새로운 쿼터 팀 타이머의 등장까지. 끝없는 타임키퍼 기술, 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오메가는 앞으로 다가올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타임키퍼를 맡는다. 이로써 오메가와 올림픽의 인연은 무려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그 전에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오메가의 타임키퍼에 대한 전문성과 역사를 한번 더 증명하려 한다.

오메가와 함께한 기록의 역사

오메가는 정확한 기록 측정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개발해왔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레이스 시간을 멈추고 1000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장비인 포토

1 애플 타이머 배경으로 설치된 오메가의 카운트다운 클락. 2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스타디움의 모습. 3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전자 기록 시스템. 4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처음 적용된, 오메가가 개발한 터치 패드 시스템. 5 2006년 토리노 올림픽으로 다시 돌아온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 6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보인 전자식 스크어 보드. 7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적용된, 5배 더 정확한 기록 측정이 가능한 한티어 시스템. 8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등장한 1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스캔 오비전 미러 포토퍼니시 카메라로 촬영한 육상 경기. 9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등장한 현대적인 모습의 포토 퍼니시 카메라. 10 1992년 알베르틴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된 스캔-오-비전(Scan-O-Vision) 시스템. 이로써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11 현대적으로 발전된 모습의 오메가 포토일렉트릭 셀.





1 애플 타워를 배경으로 센강 위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한 탁구 올림픽 5회 우승자 마롱, 2 노트르담을 배경으로 장대높이뛰기를 선보이고 있는 현 높이뛰기 올림픽 챔피언 지안마르코 탐베리, 3 애플 타워를 배경으로 맨싱 강가를 달리는 모습의 패럴림픽 맨싱 2관왕 베베 비오, 4 센강에서 수영 강기를 펼친 후 승리의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의 프랑스 수영 선수이자 400m 혼영 세계 7관 보유자 레옹 마르상, 5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200m 육상 선수 셰리카 잭슨, 6 패럴림픽 6회 우승이자 휠체어 레이싱 세계신기록 보유자 마르셀 허그, 7 오메가 2024 파리 올림픽 에디션 워치, 8 2024 파리 올림픽 엠블럼이 크게 새겨진 케이스 백의 모습, 9 씨마스터 다이버 300M에 탑재된 무브먼트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8800, 10 파리 풍경을 담은 오메가의 2024 파리 올림픽 캠페인 영상 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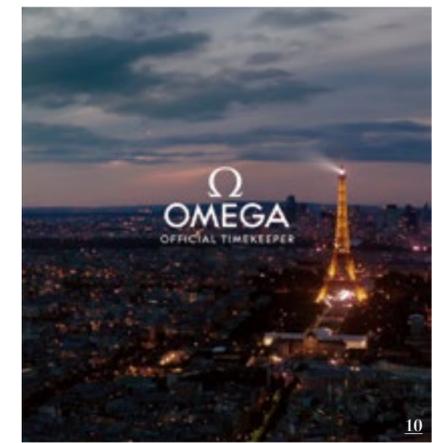
영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레옹 마르상(Léon Marchand), 현 높이뛰기 올림픽 챔피언인 지안마르코 탐베리(Gianmarco Tamperi), 떠오르는 스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스피린더 중 한 명인 에리언 나이틴(Erriyon Knighton),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200m 육상 선수 셰리카 잭슨(Shericka Jackson), 탁구 올림픽 5회 우승자 마롱(Ma Long), 패럴림픽 6회 우승이자 휠체어 레이싱 세계신기록 보유자 마르셀 허그(Marcel Hug), 패럴림픽 맨싱 2관왕 베베 비오(Bebe Vio), 스위스의 허들 선수이자 멀리뛰기, 10종 경기, 7종 경기 선수인 사이먼 에하머(Simon Ehammer), 올림픽 메달 3개를 획득한 뉴질랜드 요트 대표 팀 피터 벌링(Peter Burling)과 블레이 투크(Blair Tuke), 볼리링 세계 챔피언 미카엘 마웜(Mickaël Mawem), 프랑스 출신의 메이저 대회 우승 골퍼인 셀린 부티에(Céline Boutier). 캠페인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선수는 모두 오메가 홍보대사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스포츠를 대표하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다. 이들은 정밀함과 탁월함이라는 오메가의 가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모든 선수들을 대표한다. 오메가는 이 선수들을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 개신문, 튀일리 정원, 루브르 박물관, 센강, 풍노뜨 다리, 노트르담 대성당 등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에 착시 효과를 활용해 크게 배치했다. 이로써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파리가 그들에게 영광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듯 감동적인 연출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오메가

는 파리 로케이션 촬영에서 먼저 파리의 유명한 기념물을 촬영하고 이후 토론토, 상하이,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그린 스크린으로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제작자들은 로봇 팔에 장착된 희귀하고 특별한 카메라를 사용해 선수들의 움직임과 도시의 풍경을 부드럽고 정밀하게 결합해 시청자를 매료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영상 광고에 사용된 음악은 프랑스 래퍼 SDM과 함께 만든 작품으로, 그는 'Born to a Legend'라는 곡의 오리지널 가사를 직접 작사하고 연주했다. 오메가의 광고 콘셉트를 바탕으로 도전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꿈꾸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공식 타임키퍼로서 모든 종목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도로 측정하는 오메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헌정이며, 세계 제조 분야에서 오메가를 차별화하는 DNA의 진정성을 표현한다. 오메가 올림픽 캠페인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90년 넘게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서 수백여 경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오메가의 활약을 영상상을 통해 미리 만나보자.

파리 올림픽을 기념하는 특별한 워치

오메가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공식 타임키퍼로서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에디션 워치를 출시해 많은 시계 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 도시와 계절에 어울리는 형태와 컬러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 많은 이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오메가 올림픽 에디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4 파리 올림픽 D-1년을 기념하며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한 제품은 오메가 다이버 워치의 헤리티지와 역사를 담고 있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이다. 클래식하고 심플한 구성에 금메달의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빛 터치를 가미한 점이 돋보인다.



매력을 가미했다. 6시 방향의 날짜 디스플레이에는 파리 2024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 날짜를 알려주며 중앙 세컨드 핸드는 파리 2024 엠블럼을 작게 새겨 넣어 파리 올림픽의 DNA를 완성한다. 케이스 백 역시 파리 올림픽을 의미하는 디테일을 가득 담았다. 파리 2024 엠블럼의 특징적인 요소인 18K 문사인™ 골드 메달리온을 인레이 처리했는데, 레이저로 깎아낸 배경에 폴리싱 처리되어 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폴리싱 처리하고 프 로스트드 처리해 'Paris 2024'라는 문구와 오른쪽 엠블럼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브레이슬릿은 오메가의 새로운 특허 기술인 퀵 체인지 시스템이 적용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했으며 블루 또는 화이트, 레드 컬러의 퀵 체인지 러버 스트랩 또는 파리 2024 나토 스트랩 같은 보다 개성적인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물론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의 뛰어난 정밀도와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엄격한 수준의 품질을 충족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계측기관(METAS)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친 무브먼트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8800으로 작동한다. 2024년 7월 26일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90년 이상 스포츠 측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선수들의 꿈을 기록해온 공식 타임키퍼였던 오메가이기에 이번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파리 2024 스페셜 에디션은 더욱 가치 있다. 벌써 다음에 선보일 오메가의 흥미로운 에디션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6905-3301



(위부터 시계 방향) **그리프 클락시 비터블루리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옐리거이터 스텝 워치** 총 7.0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다이얼과 케이스에 화려하게 세팅해 다이얼의 짙은 파란색과 대비되어 빛나는 광채를 선사한다. 또 총 1.32캐럿의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귀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스타본 헬스미 CH2 서드 후크 아이링** 원과 깊게 들어간 비정형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시크한 무드를 부각한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1.63캐럿의 타워이즈 크리스탈 헤이즈, 총 1.22캐럿의 바게트 컷 브레코넬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포탈리 누도 무아에 무아링** 총 9캐럿의 스카이 블루 토파스와 총 0.8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대담한 디자인이 아련 룩에나 시원한 포인트가 된다.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빈블루프 아펠 레디 페이리 워치** 다이얼 속 구름 위에 살짝 앉은 페아리가 레트로그레이드 무브먼트 덕분에 마법의 지팡이를 움직여 분을 가리키는 워치 남자는 워치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마더오브펄, 사파이어가 하모니를 이뤄 정량한 무드를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소피노 다이얼트 칼리신 워치** 무게감 있는 블루 컬러의 다이얼을 총 4.17캐럿, 22개 다이아몬드가 감싼 디자인이 화려함을 더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가에 블루 컬러 스텝을 더해 세련되고 품격 넘치는 무드를 선사한다. 8천2백77만원. 문의 02-6905-3390 **프렌드 핸드 슈크르 라피즈 라즐리** 반지 위로 불룩한 카보숑 컷 라즐리가 대담하고 유니크한 무드를 자랑해, 포인트 주얼리로 제격이다. 아가에 옐로 골드 소재를 더해 지루한 무드를 강조했다. 1천2백28만원. 문의 02-514-3721 **다이아니 벨 에포크 네크리스** 메종의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맨디트를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정교하게 장식했으며,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또 그레이트신을 기이한 슬루엣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터 윤지영**



Love Blue

무더운 여름날 청량한 무드를 선사해줄 블루 포인트 주얼리 &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사미에 김민민



Spirit of Artisan

1837년에 창립된 이래로 에르메스는 매년 새로운 장인을 양성하고 있다. 미구 제작자부터 안장 제작자, 안장 가죽 장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술과 기준을 계승하는 동시에 장인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있다. 덕분에 에르메스 오브제에는 끈기와 인내심이 가득 담겨 있으며, 정밀한 기술, 혁신적인 장인 정신이 가미된 무한한 결실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에르메스는 독창성과 혁신을 경험할 수 있고 장인들의 작업 공정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르메스 인 더 메이킹(Hermès in the Making)'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실크 스킵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입혀주는 패턴과 색상의 프린팅부터, 가죽 장갑 한 켤레를 만드는 첫 단계와 켈리 백을 완성하기까지의 제작 과정, 그리고 가방 수선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독창성과 전문성을 모두 직접 볼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행사였다. 또한 새로운 에르메스 H08 워치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쉐인 당크르(Chaine d'Ancre)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데 요구되는 인내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새하얀 포슬린 플레이트에 포브 드 뉴(Faunes de Nuit)를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교함과 에르메스 비바스(Vivace) 쇼 장평 안장을 조립하는 데 요구되는 손재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에르메스의 다양한 메티에(métier, 제품군) 장인들이 함께 참여해 그들의 도구, 소재, 노하우, 계승 정신 등을 대중에게 선보여 에르메스만의 특별함과 진정한 럭셔리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에르메스는 단 한 명의 장인이 모든 제작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하는 유구한 장인 정신을 하우스의 DNA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장인 정신을 지속하기 위해 트레이닝은 필수인데, 하우스는 80명이 넘는 트레이너와 2백 명이 넘는 멘토를 고용해 기법과 기술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장인들은 초기 노하우를 습득하는 첫 번째 단계와 멘토의 지원을 받는 두 번째 작업 단계까지 약 18개월간 교육을 받는데, 기술과 비법은 주로 멘토링을 통해 구두로 전수받으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장인들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생 동안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숙련된 1명의 장인이 켈리 백을 구성하는 36개의 가죽 조각과 다양한 금속 장식을 꿰매고, 접착하고, 조립하는 데 15~20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 각 가방은 '1인 1가방' 방식으로 작업대에서 한 명의 장인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된다. 좋은 비느질은 좋은 스카이빙(skiving, 가죽 쪼기)이 필요하고, 좋은 스카이빙은 좋은 재단에 의존하며, 좋은 재단은 가죽과 결점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정의 각 단계는 우수성의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인들은 각 작품에 정성을 기울인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가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각 장인은 자신만의 시인, 즉 고유한 스탬프를 받게 되며, 이 스탬프는 추척 도구로도 사용된다. 이는 완벽하게 실행된 작업을 인증하는 시그니처다. 이렇게 에르메스의 장인은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고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 장인 정신이야말로 에르메스만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지영**



1 에르메스 인 더 메이킹(Hermès in the Making) 이벤트 모습. 2 비바스(Vivace) 쇼 장평 안장을 제작하고 있는 장인. 3 단 한 번의 슬라이딩 동작으로 부드럽게 열리는 잠금장치기 토포베는 베루(Verrou). 4 프랑스에서 방직된 라넨 실. 말뚝으로 고품질 견고함과 내구성을 보장한다. 5 1984년, 제인 버킨(Jane Birkin)을 위해 제작된,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휴대성을 갖춘 버킨(Birkin).





About Frames

작은 디테일 하나로 남다른 취향과 개성을 부여하는 아이 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프렌트의 실버 매탈 라벳 디테일과 볼드한 프레임이 특징인 핑크 라벳 울타릴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호프 스타일의 패턴이 매력적이며, 오벌 프레임으로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부여하는 인경테 51만1천원 **마유미우 바이 에실로룩스타카**, 문의 02-501-4436, 각진 스커이 형태로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내는 티타늄 소재의 인경테 57만5천원 **키오 아미토 by 디케이**, 문의 02-717-3990, 그레이 컬러의 반투명 아세테이트 소재 스커이 세이프 프레임이 독특하며, 템플을 BOLD 컬렉션의 시그니처 심볼로 장식해 포인트를 준 가우스 GC9 32만원 **켄틀몬스터**, 문의 1600-2126, 90이던한 글라스가 레드무드를 자아내고, 양면 삼각형 로고 디테일이 아이코닉한 감성을 선사하는 골드 프레임 아이 웨어 가격 미정 **프리다 바이 에실로룩스타카**, 문의 02-501-4436, 은은하고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가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해주며, 양면 로고 디테일이 매력적인 화이트 글라스 프레임의 아이 웨어 32만9천원 **베버리 바이 에실로룩스타카**, 문의 02-501-4436, 반투명 오렌지 컬러의 바이오 기반 소재로 제작했으며, 고급을 연상시키는 볼드한 프레임이 인상적인 선글라스 경용 인경테 26만3천원 **레이비 바이 에실로룩스타카**, 문의 02-501-4436, 스마트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해주는 하급테 형태의 아이 웨어 41만5천원 **에스티 듀봉 by 디케이**, 문의 02-717-3990, 에디터 **성민원**

아이웨어 42명



1 로로피아나의 상징적 셔츠인 인드레 셔츠를 입은 모델, 2 라넨의 연사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상세한 공정, 3 로로피아나 라넨의 소재적 특성과 컬러감을 잘 표현하는 제작 공정.



Cool & Luxury

최고급 소재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작 기술로 절제된 스타일과 유행 타지 않는 우아함을 선보이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 여름에 환영받는 소재인 리넨 역시 로로피아나만의 방식으로 제작해 고급스럽고 쾌적한 촉감을 완성해낸다.

창립자 피에트로 로로피아나의 이름을 딴 브랜드 로로피아나. 19세기 초반 모직물 상인에서 이후 직조 회사로 거듭난 것이 브랜드의 시초다. 1924년 제조 및 생산 방식에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믿고 피에트로 로로피아나는 코르소 플라타 지역에 새로운 회사, 로로피아나 & 컴퍼니(Loro Piana & C)를 창립했다. 1941년엔 피에트로의 조카 프랑코 로로피아나가 경영권을 이어받아 하이패션 모직물과 직물 분야에서 명성을 쌓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후 캐시미어, 비쿠나, 라넨 등으로 대표되는 고급 섬유를 유럽 전역과 미국, 일본에까지 수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타협하지 않는 품질에 일부 재단사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유명 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1980년 피에트로 로로피아나의 6대손인 세르지오와 피에르 루이지 로로피아나 형제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신소재 개발 및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전력을 쏟았다. 이때부터 로로피아나는 브랜드의 이름을 내건 패션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했다. 1990년대 말에는 의류는 물론 신발 및 스키프와 액세서리를 선보이는 종합 패션 브랜드로 거듭났다. 2013년에는 루이비통 오트 헤네시(LVMH) 그룹의 일원이 되어 더욱 탄탄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로로피아나 라넨의 놀라운 노하우
앞에서 언급했듯 로로피아나는 창립 초기부터 소재에 대한 노하우와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 대한 장인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로로피아나 라넨은 메종의 상징과도 같은 소재. 최고급 연사를 사용해 독보적인 노하우로 제작하며, 이를 통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을 담은 패브릭으로 탄생시킨다. 여기에 유행을 타지 않는 우아한 디자인을 적용해 놀랍도록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완성한다.
좋은 라넨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라넨의 원료가 될 아마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것이다. 로로피아나는 이 공정부터 관여하고 있다. 로로피아나 라넨은 최고급 라넨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노르망디와 벨기에 특유의 습한 기후에서 재배된다. 그 때문에 로로피아나 라넨은 아마 밭에서 익류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100% 유럽산임을 입증하는 마스터스 오브 라넨™(Masters of Linen™) 인증을 받았다. 라넨은 다른 소재에 비해 지속 가능성이 높다. 재배 시 관개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살충제가 덜 들어 그 자체로 환경성, 보물 발생 방지 기능,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매종과 아마 재배 농가들은 최상의 품질, 투명성, 현지 생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확 후 건조된 아마는 물에 담그거나 이슬의 수분에 노출시켜 자연 분해를

통해 식물 줄기에서 섬유를 추출하는 과정인 레팅(retting)을 통해 변형을 거친다. 이어서 비팅(beatting) 과정을 통해 원하는 섬유를 식물의 목질 중심부에서 분리해낸다. 이때 장인이 수작업으로 귀한 섬유를 분리해 무결성과 순도를 유지하는 수공 기법을 사용한다. 이후 정소면(combing) 공정으로 추출한 긴 섬유를 짧은 섬유에서 분리하고 조심스럽게 정렬해 방적 공정을 준비한다. 그다음으로 섬유를 평행한 실로 배열해 연사의 완벽한 강도와 탄성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리넨 향상의 띠가 생성되면 방적을 거쳐 라넨 연사가 탄생한다. 이렇듯 매종에서는 장인의 전문적인 손길을 거쳐 실 가닥을 세심하게 검사하고 조정함으로써 모든 연사의 균일성과 정밀도를 보장한다. 로로피아나는 동종 업계 최고인 Nm110 라넨 연사를 사용하는데, 1kg의 연사를 110km까지 늘릴 수 있다. 라넨 패브릭은 매종의 공정에서 정경(warping)과 직조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데, 이는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밀도 노후가 필요한 예술적 과정이다. 마무리에서 라넨을 일로에 배려로 처리해 항균성 및 흡습성을 다하고 패브릭에 부드러움을 가미하면, 로로피아나의 탁월한 착용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정성스럽고 세심한 공정을 통해 단단한 천연 아마의 줄기를 고급스럽고 편안한 라넨 섬유로 탄생시키고 여기에 메종의 대표적인 착용감을 더하면 고급스럽고 편안한 의류가 완성된다. 섬유 선별 과정은 시간과 능숙한 촉감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예술과 같다. 메종의 장인들은 라넨 연사와 고급 캐시미어, 실크, 울을 혼합해 패브릭의 구조, 모양, 느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인적 접근 방식을 통해 라넨의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고 직물 장인 정신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 모든 것은 1백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급 라넨 생산의 선두 주자인 솔비타이 공장이 있기 가능했다.
솔비타이에는 5만 개의 샘플과 1만 개의 인쇄물로 구성된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대한 자료를 영감 삼아 패브릭, 색상, 디자인에 대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들려준다. 과거 수공예 기법을 연구해 타일리스한 스타일로 변모시키는 것. 2010년 로로피아나는 최고급 라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럽 생산 체인을 완벽한 솔비타이 공장을 인수했다. 이후 2013년부터 솔비타이는 로로피아나 라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로로피아나의 라넨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뛰어난 원재료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 최고급 연사의 사용, 새로운 혼합과 마감 처리를 구현하는 혁신이다. 선구자이자 혁신가를 지칭하는 솔비타이, 그리고 로로피아나 제품에는 기술 연구, 예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아이코닉 로로피아나 라넨 셔츠, 안드레
1998년에 탄생한 인드레 셔츠는 로로피아나의 아이코닉한 라넨 제품이자 디자인적 DNA를 지닌 제품이다. 로로피아나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스위스의 예술가이자 화가 안드레 피오트(André Piolet)의 이름을 딴 셔츠로 넥타이 없이도 사프하게 보이면서 따뜻한 기후에 제격인 셔츠를 입길 원한 그의 요구에 따라 제작되었다. 따라서 로로피아나는 1950년대 니콜리 셔츠 제작과 그 시대를 살았던 신사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절제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셔츠 디자인에 뻗었던 밴드를 없애고 칼라를 넓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픈하거나 넥타이와 함께 착용해도 자연스러우며 재킷 또는 스웨터 안에 착용해도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완성해냈다.
최초의 인드레 셔츠는 데님으로 제작되었으나 곧 고온다습한 날씨에 이상적인 라넨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세련미와 캐주얼한 매력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이는 인드레 셔츠는 현재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모두 출시되며, 일로에 배려 처리를 통해 더욱 부드럽고 시원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의류로 거듭나 기본 좋은 감촉을 선사한다.
이 인드레 셔츠는 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해 특별함을 더한다. 바로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Aura Blockchain Consortium)이라는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진품 여부를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지속 가능성 등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럭셔리 그룹 5곳이 모여 2021년에 설립한 협회다. 스위스에 위치한 이 비영리 협회의 설립 목적은 블록체인의 몇 가지 기술을 활용해 럭셔리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하며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컨소시엄은 전세계 모든 영역에 걸친 럭셔리 브랜드를 대상으로 단일 글로벌 블록체인의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추가 정보, 서비스, 투명성을 제공받고 새로운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접할 수 있다. 로로피아나는 라넨 소재 인드레 셔츠에 생산 이력 추적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은 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아마 밭에서 연사, 의류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라넨 소재의 인드레 셔츠가 생산되는 전체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로로피아나의 수직적 통합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블록체인의 데이터 덕분에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넨 소재의 모든 인드레 셔츠의 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앱도 출시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성을 추구하는 로로피아나 매종과 인드레 셔츠에 대한 헌신을 상징한다. 문의 02-6200-7796 **에디터 성민원**

GIRLS ON TOP

승리를 위하여! 새로움에 도전하는
도발적인 빅 패션 매치.

photographed by yang joong san



트리옴프 로고 포인트의 화이트 레드 컬러
베이스볼 캡, 블랙 톨과 아이보리 컬러의
캐시미어 소재 트윈드 재킷 모두 가격 미정
셀윈드 바이 에디슬리먼, 빅 스퀘어 프레임의
아이 웨어 아바 02 33만원 **컨템포리스트**.



이르헨토나 축구 대표 팀 마크를 더한
이르헨토나 베이스볼 캡 30만원
아디다스,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코튼
소재의 부클레 맥시 드레스 가격 미정
질센더, 소프트한 패딩 가죽 소재의 블랙
트위스트 버블 샌들 가격 미정 **아르니**.

컬러풀한 색감이 독특한 패턴을 지니는 루피 스트라이프 니트 드레스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통**, 화이트 카프 레더 리운드 토 블랙 힐 가격 미정 **질 샌더**,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시합구인 알 힐라 프로 볼 18만9천원 **아디다스**.



짙은 그레이 컬러의 트윈드 코트, 레드 컬러로 트라킹 포인트를 준 벨벳 저지 소재 스츠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블러드 레드 컬러의 장미를 프린트한
아이보리 시폰 소재의 오픈 백 디플
레이어드 무슬기 슬립 드레스 가격
미정 **일렉산더 맥퀸** 카프 스킨
소재의 인보드 샌들 1백15만원
에르메스



프림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클래식한
연보라색 크로세 헤드 밴드 가격 미정
프라다, 어깨와 가슴 장식이 돋보이는
화이트 컬러 발룬 핏 원피스 56만원에
셀프 포트레이트



(왼쪽 페이지)
투명한 프레임과 디자인이 스포티한 무드를
신사하는 반투명 선글라스 36만9천원
오를리 by 에실로 룩스타가, 타이포그래피
패턴이 돋보이는 슬리브리스 원피스 가격
미장 **켄조** 로고로 완성한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포인트를 부여하는 브라스 소재
DG 로고 링 74만원 **올레안하비나**, 로즈
골드 소재의 엘리티브로쉬 링 74만4천원
에르메스, 블랙과 실버인 컬러의 조화와
크로노그래프 등이 우아한 스포티함을
신사하는 콘퀘스트 크로노그래프
5만6천원 **론진**, 체인 디자인의 레드
패이먼트 레더 하이힐 슬링백 캄포스
1만5천원 **구찌**

오픈워크 스타일로 완성해 독특한 감성을
부여하는 실크 소재의 아라카와 헛 84만원,
화이트 아쿠아틱 저지 소재의 아쿠아틱
원피스 66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모델 **박승아(ESteem)**
어시스턴트 **김보민**
에디터 **상영민**

-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 켄틀몬스터** 1600-2126
- 아디다스** 1588-8241
- 질 샌더** 02-3185-2171
- 미르니** 02-772-3233
- 보타가 베베타** 02-3438-7682
- 사넬** 080-805-9628
-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 에르메스** 02-542-6622
- 프라다** 080-522-7199
- 셀프 포트레이트** 02-6911-0836
- 에실로 룩스타가** 02-501-4436
- 켄조** 02-6905-3506
- 올레안하비나** 02-3442-6888
- 론진** 080-500-1832
- 구찌** 02-3452-1521
- 로로피아나** 02-6200-7799

Summer Breeze

향으로 기억하는 이 시절의 그뜨거운 여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로에이 아에 수틸레시오 드 뒤일렛 아이 레(AIRE)라 는 디어펠 우리를 둘러싼 순수한 공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플로럴과 배, 은행을 꽃, 재스민 노트를 은은하고 조화롭게 믹스해 이차 기반은 공기처럼 아주 상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담았다. 100ml 24만원. 문의 02-6905-3332 **에르메스 에르메스 오우드 일라잔 오 드 파뮌** 조향사 크리스티나 니아겔이 어린 시절 송아를 배울 때 참깨밭의 일의 냄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로 따뜻하고 능동적인 느낌이 맡의 뜨거운 에너지를 표현하며 오우드의 로즈 워터 등으로 마구간에서 나는 물방 냄새와 부드러운 동물의 숨결을 담아 아름다움 향으로 완성했다. 100ml 44만원. 문의 02-310-5174 **트루통 이슬라 오 드 파뮌** 지중해 해변을 무대로 만든 캄백션의 향수로 고귀한 재료인 베르가모트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춘 시트러스 노트로 노을 진 바다의 수평선 위에 뜬 태양을 표현했다. 지중해의 밝고 풍성하며 신선한 아로마가 돋보인다. 100ml 39만원. 문의 02-6905-3324 **아쿠아 디 파르마 만다린노 디 시칠리아 오 드 드향** 이탈리아 지중해 해변과 태양, 생수를 떠올리게 하는 향으로 시칠리아 장원에서 재배된 강줄기 과일인 산딸기와 시트러스향을 그대로 재현했다. 상쾌한 베르가모트, 레몬 향이 시타우드의 아우라처럼 고급스러운 향을 남긴다. 100ml 28만5천원. 문의 02-6905-3568 **에디션 드 파뮌 프라데리 말 아크네 스튜디오 파 프라데리 말** 프라데리 말에서 패션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와 함께 선보인 아크네 스튜디오의 첫 번째 향수. 조향사 수지 로 할레이(Suzi Le Heley)는 아크네 스튜디오의 청아하고 활기찬 느낌에서 영감이 독특한 향을 완성했다. 다양한 과일과 플로럴, 마스크 향 등이 아우라처럼 달콤하고 귀한 느낌의 향을 선사한다. 100ml 50만3천원. 문의 02-3479-6238 **디올 뷰티 라 클라송 프라베 에덴-록 오 드 파뮌** 두 주이 샴에디션 디올 뷰티의 프라비엄 향수 컬렉션으로 크리스찬 디올이 사랑한 브라질 리베랑의 싱그러운 향기와 지중해 태양 빛을 담았다. 이 컬렉션의 세 가지 제품 중 에덴-록은 우디 플로럴 노트로 지중해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후각적으로 재현했다. 125ml 49만원. 문의 080-342-9500 **디프티크 헤르미티지 샴퍼 캄백션 일라잔 오 드 뒤일렛** 그리스어로 태양을 의미하는 제품에서 알 수 있듯 대강 빛으로 물든 지중해와 독특한 과잉된 백초를 향으로 표현했다. 플로럴과 프루티, 아로마와 재스민 노트 등이 더해져 매혹적이고 경쾌한 지중해 여름 향기를 전한다. 파카 지에 프랑스 아티스트 일라잔 드 로망 나베(Alexandre Benjamin Navel)가 그린 지중해 풍경 일라잔 드로 인성한다. 100ml 24만2천원. 문의 02-3446-7494 **에디터 선정**

Editor's Pick

뜨거워진 날씨로 예민해진 피부에 휴식을 더해줄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oh hyeun g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맥 뉴 글로우 클레이 렌티클 탭탐 #전트드 #459 인솔 컬러를 바르지 않은 날에는 늘 피곤해 보이거나 피부보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 40대 중반. 가벼운 텍스처, 살짝 가미된 광택 파우더, 자연스럽고 쫄쫄한 질감이 매력적인 이 림팩은 들고 다녀야 수분 바르기 직전이다. 3.14g 39만9천원. 문의 02-3440-2782 **by 에디터 장미윤**

나스 라구나 클레이 페이스 팔레트 이 제품은 요즘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데일리 메이크업은 물론,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모두 완성된다. 4개의 아이셰도는 물론 과 볼륨 모두에 어울리는 컬러로 구성했고, 동양인에게도 잘 어울리는 2개의 브라운즈와 1개의 하이라이터를 더해 높은 활용도가 돋보인다. 16.8g 8만3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윤자경**

쿠오카 바질소르베 캔디드 & 바디 워시 더위까지 잊게 만드는 상큼한 무화과와 베리를 얹은 시원한 바질 소르베가 떠오르는 향. 스킨케어에 효과적인 생분을 나타내는 EVG 그린 등급의 원료인 화이트 트러플, 자두나무 수액, 바질 추출물을 담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민감해진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손이 자꾸만 가는 애정템. 300ml 3만7천원. 문의 02-2205-5559 **by 에디터 신정민**

디올 뷰티 디올 프라스티지 라 로션 에센스 드 로즈 디올 스킨케어에서 고급 인티 에이징 라인에 속하는 디올 프라스티지 라인 제품은 역시 다르다. 이 로션이 추구하는 리아티티라이징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우윳빛 포플러가바르는 순간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감촉. 은은한 디올 로즈 향까지 더해 피부가 재빨리 회복하는 느낌을 맛볼 수 있다. 150ml 22만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신정민**

베스 앤 바디 워시 바디 워시 샴푸인 토스트 해외 친구들만 만나볼 수 있었던 베스 앤 바디 워시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으로 불리는 샴페인 토스트는 샤워 후 기분 좋고 특유 푸는 샴페인 향과 달콤한 꽃내음을 선사하며, 비타민 D와 알로에 성분을 함유해 보습력까지 좋았다. 295ml 1만9천원. 문의 02-1588-1234 **by 에디터 신정민**

디프티크 헤르미티지 샴퍼 캄백션 시트럴로블 클라시 쉼들 더위에 지친 날에는 쉼들 향을 맡으며 몸을 릴렉스하는 편이다. 푸르른 그린 노트와 신선한 레몬그라스 향을 더해 탁 트인 지중해 바다에서 여름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쉼들牌坊경에 귀여운 일라잔트를 새겨줄 대교용으로 재귀. 190g 9만9천원. 문의 02-3446-7494 **by 에디터 신정민**

샴파이스턴 래디언트 블러쉬 리퀴드 이 제품을 활용해 메이크업을 한 날은 여러 보인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글로를 선택해 전체적인 무드를 싱그럽고 영하게 만들어준다. 시원한 진쑤트 미세 입자가 생기 있고 빛나는 피부를 완성하는 것은 물론,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4g 12만2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윤자경**

에르메스 운 자르덴 아 샴푸 헤어 앤 바디 드라이 오일 밖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시원하게 샤워하고 난 다음, 고생한 나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에르메스 헤어 앤 바디 드라이 오일을 바르는 것. 머리에 오일을 바른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주어 촉촉한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0ml 7만9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신정민**

라쉬 더 워 워터 레몬 오일 요즘에 이 제품을 놓아주었다니 최강성은 물론 진 전체에 싱그러운 향이 가득하다. 7분까지 상쾌하고 활력을 얻은 듯한 느낌. 오래된 에센셜 오일이 피부를 톱 톱 질감까지 촉촉하게 보습시켜주는 피부를 만날 수 있다. 130g 1만7천원. 문의 1644-2357 **by 에디터 윤자경**

톨 포드 뷰티 네뮐리 포르모트노 파뮌 여름 향수를 생각하면 에디터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톨 포드의 프라비엄 네뮐리 포르모트노파뮌. 그 향수가 피부로 직접으로 흡수된다. 이탈리아 라비엔나의 무성한 시트러스 정원의 생생한 기운을 머금고 갖힌 오렌지 꽃의 아로마를 연상시키는 플로럴 에센셜 오일. 활력 넘치고 신선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향이다. 50ml 6만1천원. 문의 02-6971-3211 **by 에디터 장미윤**

바비리 뷰티 바비리 비온드 헤어 파우더 매트 쿠션 20 메이크업 가깝고 촉촉한 텍스처를 자랑하는 이 쿠션은 바비리 트랜지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기술 트랜지트-프로텍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물, 습도, 열, 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또 대나무 파우더와 칸나리우 꽃 추출물이 들어 있어 보습기능을 잡아주고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14g 9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신정민**

샴피리 뷰티 리드 & 레터 캄백션 로즈 퍼펙트 리프트 밤 N112 누드 피치 향과 피치 컬러가 물리 밤 오일로 섞여 있어 보습력처럼 발랐을 때도 끈적임이 없으면서 고글로시한 인상을 연출해준다. 약간 화한 느낌이 감들면서 인상이 플럼프되어 볼륨감이 업되는 느낌. 피부가 노란 동양인에게도 잘 맞는 누드 피치 컬러 역시 만족스럽다. 6ml 49만9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신정민**

샤넬 N1 DE CHANEL 레드 캄백션 아이 샴푸 부가인 디프티크 샴푸, 그리고 지금 가리는 잔주름, 눈가 고민상층 세팅기 한 번에 찾아오는 여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 매일 아침샤워로 로레아 캄백션 샴푸를 이용해 눈을 씻듯 바르면 후는 눈가 인공에서 바깥쪽으로, 미간 아래에서 위쪽으로, 눈썹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15ml 14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by 에디터 장미윤**



SHOWROOM

FASHION



랄프 로렌



랄프 로렌



리모와



투미

랄프 로렌 클래식한 무드를 담은 여름 아웃핏 제안. 안 랄프 로렌에서 클래식한 무드를 담은 재킷과 팬츠로 코디한 여름 아웃핏을 제안한다. 사계절 내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라틴 소재를 사용했으며, 질은 네이비 컬러로 클래식한 무드를 지니는 캔슬리 재킷과 디리아 팬츠로 구성했다. 아울러 랄프 로렌의 장인 정신을 담아 정교한 실루엣으로 완성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토즈 토즈 남성 탭스(Tabs) 스니커즈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4 여름 시즌을 맞이해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유연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탭스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한 탭스 스니커즈는 측면에 스테핑 토즈 로고를 더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지닌다. 매 시즌 다양한 소재 및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리모와 리모와x에메 레온 도르 컬렉션 출시 리모와에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패션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메 레온 도르와 만나 컬래보레이션 컬렉션을 공개했다. 독일에서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특히 이번 협업에서 리모와의 1964년 캐빈 트렁크 아카이브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체크트 제품은 금으로 도금한 파츠 포인트로 장식해 새롭게 선보였으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투미 19 디그리 알루미늄 컬렉션 투미가 클래식하면서도 시원한 무드가 느껴지는 '19 디그리 알루미늄 컬렉션(19 Degree Aluminum Collection)'을 선보였다. 싱그러움 여름이 연상되는 컬러웨이로 출시한 텍스처 포레스트 그린, 텍스처 실버, 그리고 텍스처 블라시 등 3가지 컬러를 주력으로 선보이며 투미 공식 온라인 스토어(lumi.co.kr)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39-8160



티파니

JEWEL & WATCH



불가리



브레게



그라프

티파니 티파니 락 컬렉션과 함께하는 여름 스타일링 1백77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티파니가 티파니 락 컬렉션을 활용한 시원한 여름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18K 로즈옐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프 파베와 풀 파베 버전 브레이슬릿 스타일로, 티파니 락 밴글과 레이아웃하거나 단독으로 착용해 그날의 무드에 맞춰 스타일링할 수 있다. 문의 1670-1837

불가리 불가리 2024 이터널리 리본 캠페인 공개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에서 브랜드 캠페인 '이터널리 리본(Eternally Reborn)'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서 깊은 로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터널 시티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선보였으며 글로벌 앰배서더 앤 해시웨이, 잔타이아, 유우키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젤스톤으로 완성한 주얼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그라프 위딩 플라워 컬렉션 출시 그라프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곳곳에 자리하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강인한 모습을 모티브로 한 위딩 플라워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완성한 팬던트, 이어링, 브레이슬릿, 밴글, 링, 타임피스로 구성했으며, 레이아웃으로 착용해 화려한 부케가 연상되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브레게 미린 9518 &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9 컬렉션 브레게에서 아티스틱한 마린 컬렉션을 새롭게 공개했다. 바다의 연상되는 컬러 블루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포말에서 영감을 받아, 총 2가지 컬러 다이얼을 담은 미린 9518과 딥 블루 컬러 다이얼에 로즈 골드 및 화이트 골드 소재를 사용한 케이스를 장착한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9로 구성했다. 문의 02-3497-1008

ART + CULTURE

46



44



38

42



ECOSOPHIA

가뭄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하루가 다르게 폭풍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 문명이 일취월장할지라도 위대하고 신비롭고 때때로 무지해하게 느껴지는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채를 좋아하는 인간과 그 범주를 가뭄이 뛰어넘는 자연의 관계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고도의 기술을 장착한 인간은 자연과의 가리기를 스스로 밟아지게 했음에도 자연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목말라 하는 아이러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명과 자연, 인간과 자연이 패권을 놓고 겨루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얼마 전, 경북 군위에 자리한 사유림이라는 범상치 않은 수목원을 처음으로 찾았을 때 직관적으로 스친 생각은 '이 숲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의 현인이 라고 여기는 일부러 시자를 비롯한 내로리하는 건축가들이 세심한 애정이 느껴지는 창조성을 불어넣은 사유림은 유익 규모가 있기도 하고 불거리도 많이 이르러 다니다와 의외로 사유(隱)의 시간을 누릴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숲의 주인이 아니고, 그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은 어떤 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릴없이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네 인생이 애잔하고 서글퍼지기보다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순환 생태계를 존중해왔다는 작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그 심오한 전체를 이루는 소중한 일부로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주인공'이니까요. 그리고 그 찬란한 세계에 존중을 표하는 방식에는 이 우주 아래 어쩌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생물학적인 '예술 경험'을 발견하고, 빛내주고, 나누는 일이 포함되었지요. 예술이란 진화를 거듭해온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실패하는 (미학적 인간)의 저지 앨런 디스니-이케의 주장을 실천하듯 말입니다. 이번 (스타일 조선행) 'Art+Culture' 여름 스페셜에는 '생태적 지혜(ecosophia)'를 저마다의 생의 여정에서 의미 있게 펼쳐 보인 이들의 다채로운 행보를 담았습니다. 긴 여정, 심산의 목마름을 오아시스처럼 축여줄 '예술 경험'을 글 안팎에서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글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BEAUTY



자랑시 뷰티



샤넬 뷰티



크리스찬 디올 뷰티



오피신 유니버셜 뷰티

자랑시 뷰티 2024 리브 & 레더 컬렉션 출시 자랑시 뷰티에서 아이코닉한 베스트 제품인 프리즘 리브 프라스트 파우더와 로즈 파벳트, 그리고 로즈 파벳트 리퀴드 밤을 새로운 디자인 패키지와 함께 2024 리브 & 레더 컬렉션으로 선보였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이번 컬렉션은 자랑시의 시그니처인 4G 로고를 로즈 골드 컬러 하트로 재탄생시켜 시원스럽고 러블리한 무드를 담았다. 문의 080-801-9500

샤넬 뷰티 N°5 로(LEAU) 드림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샤넬 뷰티에서 샤넬 N°5의 물결을 재해석한 N°5 로(LEAU) 드림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N°5 로(LEAU)는 샤넬 하우스 조향사 올리비에 폴주의 손을 거쳐 탄생하고 생기 넘치는 꽃과 목본적인 감성을 담았다. 시트러스의 상큼함과 재스민, 그리고 장미 향이 조화를 이루어 베르베르와 시더 향을 살짝 더해 생기 넘치고 자연스러운 향기를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리베라 팝업 개최 크리스찬 디올 뷰티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수동에서 크리스찬 디올이 사랑한 남프랑스 리비에라 지중해 여름 무드에서 영감을 받은 디올리베라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 스토어 1층에서는 디올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라인, 꾸뛰리에-퍼퓰어 향수 컬렉션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2층에서는 디올의 베스트 향수 라 컬렉션을 선보이며 메이크업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했다. 문의 030-342-9500

오피신 유니버셜 뷰티 레 자펑 프랑세 컬렉션 오피신 유니버셜 뷰티의 향수 컬렉션인 레 자펑 프랑세 컬렉션이 올해 론칭 1주년을 맞이했다. 브랜드 창립자 랑단 투이아가 골동품점에서 발견한 작은 씨앗 박스로부터 탄생한 레 자펑 프랑세 컬렉션은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꽃과 과일, 그리고 바람의 향을 표현한 베르베르, 콩콩브르, 크레송, 그로세이, 베틀리브, 배파도 두스 총 6가지 향수를 선보였으며, 프렌치 거든에 온 듯한 특별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31-688-5551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미

자연에 오롯이 기대어 생각에 잠기다

팔공산을 배경으로 대구와 접경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전국 2백28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군위는 작년 7월부터 대구에 편입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는 소외되었지만, 그 덕분에 자연이 거의 훼손되지 않아 밤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청정한 자연을 지키고 있다. 군위군 부계면에 330,000㎡(약 10만 평) 규모로 자리한 사유원(思惟園), 한 기업가의 오랜 꿈과 치열하고도 집요한 애정으로 조성된 곳이다.



1



2

고대하던 사유원에서의 하루

● 대구에서 차로 40분가량 달렸을까. 날이 좋아서인지 더욱 맑게 흐르는 듯 보이는 창평저수지를 아래 두고 팔공산을 바라보는 전망 좋은 산 자락에 자리한 사유원에 도착했다. 몇 년 전 경북 어딘가에 포르투갈이 낳은 건축 거장 알바루 시자(Álvaro Siza)의 '작품'이 놓인 거대한 산지 정원이자 수목원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 일정을 고심만 했다가,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조경가 정영선 전시에서 다시 접하고는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 '정원이 라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야 하니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6월 초는 나름 이곳을 찾기에 적기가 아닐까 싶다. 사유원에 도착하자마자 첫눈에 들어온 것은 입구에 세워진 치허문이다. '극도의 비율에 이르러 지극한 평온을 지키다라는

노자의 도덕경 16장 치허극 수정독(致虛極 守靜篤)에서 따온 이 이름은 이곳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님을 알려준다. 자연을 오롯이 느끼고 거닐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 장소로 세심히 설계된 덕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이 느껴져온다. 현재 사유원에는 아자 매트가 깔린 산책로만 6.4km 길이로 펼쳐져 있으며, 정식으로 조성되지 않은 산책로까지 포함하면 10km 이상이다. 수목 초화류는 1천1백여 종이 있으며, 9개의 주제 정원과 알바루 시자를 비롯해 승효상, 최옥, 박창렬 등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30개의 건축 작품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조각, 석상, 드로잉 등 다양한 소장품 1백여 점도 함께해 자연과 예술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이곳의 매력에 보탬이 되어준다. 이렇듯 객관적 정보를 슬쩍 옮기만 해도 평범하지 않은 이 커다란 정원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

1 사유원의 '사유원'이라는 국문 제7호 근동(近東)부동산(부동산)에서 따왔다. 그 유래를 전달하고 있는, 입구에 걸려 있는 반사유리의 사진. 사진작가 조초아의 작품이다. 2 자연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설립 철학에 따라 어디서든 사유원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3 설립자가 수집한 소나무와 돌로 조성한 한국 정원 유원은 한국 건축가 박창렬이 맡았고, 정영선 조각가가 주변 조경을 개설했다. 4 소백산생태 입구. 멀리 소백산을 바라보면 마을에 가득 쌓인 탐욕을 씻어내는 전향(轉向)라는 뜻의 소백산생태를 자비로 포아 나무 정원을 품은 풍설기천(風雪奇天)을 만날 수 있다.



3



5

인간의 유한성을 딛고... 그리고 나무

●● 사유원 설립자 유재성 전 TC벤처 회장은 어린 시절, 죽을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잘 걷지도 못해 친구 등에 업혀서 학교에 다녔다.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른 나이대부터 일찌감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맞닥뜨렸고, 언제 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0대가 되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상사를 물려받아 대구 북성로에서 철재상을 시작했다. 사업은 7개의 관계사와 2개의 공의 재단(문화 재단, 장학 재단)을 품을 만큼 성장했다.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던 치열한 과정에서 어릴 적 정원에서 느낀 정서적 위안을 기억한 그는 공장 곳곳에 한국 정원을 만들며 훗날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갔다. 현재 대구 본사 부지 약 14,876㎡(4천5백 평) 중 약 4,958㎡(1천5백 평)를 정원에 할애했다. 나무에 대한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가 '정원에 대한 꿈'을 향해 내딛은 첫 행보는 나무를 사는데 있었다. 그렇게 한두 그루 사 모은 나무는 전국 곳곳에 농장을 분양받아 옮겨 심었다. 그러다가 나무를 위한 보금자리가 될 땅을 찾아다녔고, 대구를 상징하는 팔공산을 마주보는 군위군 부지를 낙점했다. 정원을 만들겠다는 어린 시절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전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3월, 군위군 부계면의 부지를 매입한 유 회장은 2년 뒤 수목원 조성 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곳에 처음 뿌리를 내린 나무는 2009년에 심은 배롱나무. 이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는 모과나무를 추가로 들였다.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 선생이 현재 '풍설기천(바람, 눈, 비를 맞으며 세월을 이겨내 1천 년을 가는 모과 정원이 되라는 의



6

5 본래 예술가들을 초대해 음악 공연을 열기 위해 지은 사당. 내부에는 예술품도 전시, 다들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으며, 야외 탁트이는 현재도 종종 공연이 열린다. Photo by 강동규 이미지 제원 사유원 6 면적만 10만 평, 산책로 길이는 6.4km. 길을 잃는 방문객이 종종 발생해 본연의 위상을 확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곳곳에 표지판이 놓여 있다. 7 눈이 쌓인 겨울의 정원과 정영선 조각가가 터를 잡고 108그루 모과나무를 옮겨 심은 이곳은 사유원의 심장부다. Photo by 강동규 이미지 제원 사유원 8 녹음이 무성한 초여름의 풍설기천. ※ 1~4, 6, 8 Photo by 고성민



7

미)이라 불리는 위치에 터를 잡고는 모과나무 정원을 만들었고, 이로써 사유원의 심장부가 형성된다. 사실 모과나무에 얽힌 에피소드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일본으로 밀반출될 운명에 처한 3백 년 된 모과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 회장이 4배에 달하는 웃돈을 들여 네 그루를 처음 사들인 것이 인연의 시작점이다. 현재 약 19,834㎡(6천 평) 부지에 옮긴 108그루의 모과나무가 자태를 뽐내는 아리따운 정원은 사유원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각 모과나무에는 구입한 날짜와 장소, 판매자를 기록한 현판이 붙어 있어, 이 모과나무들이 사유원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알 수 있다. 풍설기천년 말고도 배롱나무 밭인 '별유동천', 느티나무 숲 '한유시경', 매화 언덕 '매산첩첩' 등 다양한 수종이 군집해 있어 저마다의 산책로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사유원의 매력이다.



8



군위군 부계면에서 비로소 실현된 알바루 시자의 설계도

이렇듯 개인의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원을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물꼬를 튼 것은 '소요현'이다. 건축계 최고 영예로 여겨지는 프리츠커상(1992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온 '건축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칭송받는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소요현에는 장자의 소요유(우주와 하나가 되어 편안하게 거닐다란 의미) 사상이 반영되었다. 아마도 20세기 가장 유명한 반전(anti-war) 회화인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상설 전시를 위한 작업이었던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어야 할 이 건축물은 프로젝트 중단으로 알바루 시자의 캐비닛에 묵혀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년 뒤 한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실현된

것이다. 알바루 시자는 전쟁과 희망을 담은, 본연의 목적이 있다며 설계도를 주기를 거절했지만, 사유원이 위치한 지역이 한국전쟁 격전지였다는 스토리텔링의 진정성으로 결국에는 그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소요현은 소문자 y 형태 구조로, 기존 설계안에 계획된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임신한 여인' 대신 시자의 조각들이 설치되었다. 좀처럼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만큼 예술적 오라가 진하게 흐르는 소요현에서 피카소의 '임신한 여인' 자리에 위치한 허얀 '생명의 알' 조각을 보고 뒷문으로 나오면, 사유원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마주한다. 시자의 또 다른 작품인 '소대'다. 소요현에 이어 시자는 한국 가톨릭계 지식인 김익진 선생



1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소요현과 소대가 보이는 풍경. 낮고 높은 두 건축물이 서로를 바라보듯 자리한다. Photo by 김중오, 이미지 제공, 사유원 2 소대에 오르면 알바루 시자 의도대로 소요현 안이 아닌 밖에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3, 4 소요현 내부의 조각, 본래 설계도에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알바루 시자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고, 임신한 여인 자리에는 허얀 '생명의 알'이 놓여 있다. 5 한국 가톨릭계 지식인 김익진 선생과 그의 우정을 나는 힐스 메우스 신부에게 헌정하는 경당 '내삼낙원'은 지금까지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경당 중 규모가 가장 작다.



에게 헌정하는 경당 '내삼낙원'을 설계했는데, 두 건축물을 완성한 이후에 작은 전망대를 짓고 싶다는 면서 제안을 건넸다. 방문객들이 소요현을 안이 아닌 밖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건축물이 자연보다 돌보이지 않기를 고집한 설립자는 위로 우뚝 솟은 소대의 설계를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으나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건축가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게 된다. 실제로도 소대에 올라서야 소요현의 y자 형태가 오롯이 드러나며 비로소 건축물을 온전히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든다. 안타깝게도 1933년생으로 90대인 알바루 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사유원을 찾지 못했다. 소요현 중간 정원에 심은 5그루의 목련나무는 시자가 가장 '예정하는' 나무로, 봄날에 청초하게 꽃을 피운 사진을 보고 그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사뭇 절절하고 애뜻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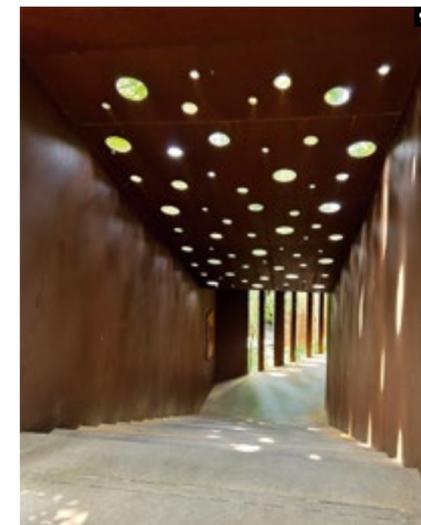


자연을 닮은 승효상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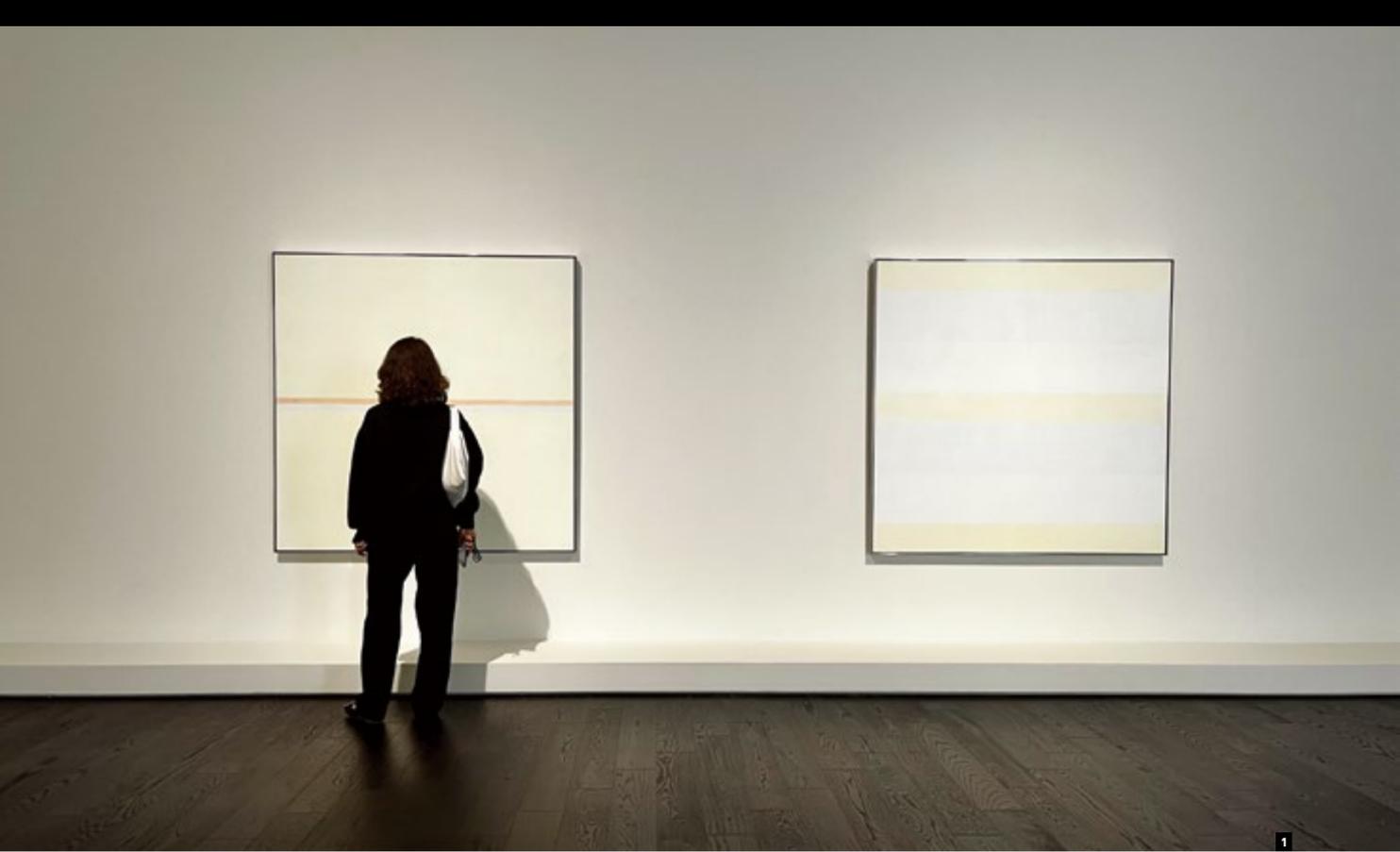
사유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발한 명칭이나 아이디어에도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도 여럿 있다. 다소 외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비교적 드문 '와사(명상의 수도원)이 물길 따라 누웠다'는 의미)는 잔잔하지만 오랜 여운을 남긴다. 와사는 붉은 코르텐강을 접어 만든 구조물로, 생태 연못을 바라보며 물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기도소, 식당, 도서관, 침실 등 수도원 공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네 곳으로 구획되어 있고, 건축 터에 자리 잡은 나무들을 자르거나 해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룬다. 사유원에서의 중일 산책 여정은 승효상의 또 다른 건축물 '현암'에서 정점에 다다른다. 원래는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잘 자리 잡는지 보려고 설립자가 머물기 위해 지은, 사유원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마치 본래 이곳에 존재해왔던 것처럼

최소한의 형태로 지은 현암은 어디에서 바라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지 알고 있는 듯하다. '티하우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실내에서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다과를 즐길 수 있는데, 멀리 알바루 시자의 소대가 조그맣게 보이는 파노라마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아도 사유원(思惟園)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듯하다. 조각가가 돌에서 형상을 발견하듯, 건축가도 자연에서 건축을 발견하는지 모른다. "건축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The creation of a building is not a matter of what it looks like, but what it wants to be)"라는 루이스 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돈다.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려 건축은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마치 그곳에 자리한 나무처럼 풍경과 하나가 된다. 돌보이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담으려 하지 않는다. 현암에서 바라본 풍경과 현암이 놓인 풍경, 어느 것도 지나침이 없다. 많은 이들이 하이라이트로 꿈을 만큼 수려한 경관을 배경

으로 가야금 연주 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사유원 설립자는 나무와 건축뿐 아니라 음악에도 깊은 조예가 있다. 그는 장학금을 통해 국악인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유원에서 '국악 축제' 개최를 고민하고 있다는 '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시어로 들리는 가야금 연주 소리를 상상해본다. 사실 방문 전에는 사유원 웹사이트를 보고 수목원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며 투덜댔지만, 도착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절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사유원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이곳이 단순한 수목원이 아님을 여실히 깨닫게 된다. 2006년부터 15년에 걸쳐 완성된 사유원은 한 사람이 50년 동안 준비한 꿈의 결실이자,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곳이다. 현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오로지 설립자의 개인적 상상에서 태어난 사유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유원을 떠나면서 해가 바뀌는 시기든, 계절이 바뀌는 시기든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글 김민서 Edited by 고성연



6, 7 설립자가 옮겨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렸는지 지켜보기 위해 지은 현암은 사유원에서 가장 처음에 지은 건축물이다. 방문 전에 티하우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사유원에서 자연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질 만한 파노라마시 뷰로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8, 9, 10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와사. 명상의 수도원을 표방하는 이곳은 단단한 코르텐강을 사용했던 나무를 자르거나 주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품어냈다. ※ 2~7 Photo by 고성연 ※ 8~10 Photo by 김민서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리처드 마이어 백색의 3중주

해풍에 솔 향이 담겨 있는 곳 강릉, 그중에서도 '소나무가 많은 고을(솔울)'을 찾았다.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5. 4~8. 25)과 <In Dialog: 정상화>(5. 4~8. 25) 전시를 각각 관람하다 보면 2중주를 듣는 것 같다. 그런데 마이어 파트너스(Meier Partners, 서울미술관 설계)가 합류해 3중주가 되었다. 어쩌면 미술관이 시야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이어의 전주가 시작되었으나, 자연의 소리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전시와 미술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은 확장되어 3D 공간이 되고, 공간은 거대한 심포니가 되어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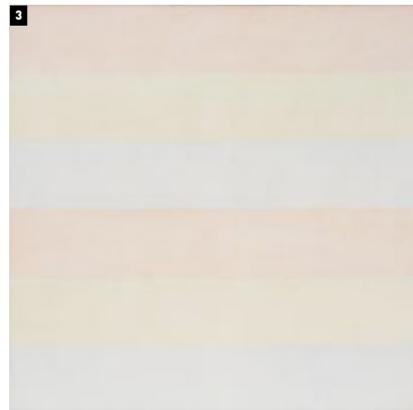
백색 명상

●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 1912~2004)의 작품 앞에 서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알 수 없는 '울적함'이 올라왔다. 쟁쟁한 코를 달래며, 혹여 감정이 들켰을까 결 눈질로 슬쩍 주변을 살핀다. '데자뷔' 현상이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에 바로 기억이 난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후기 작품을 봤을 때였다. 이러한 감동에 무엇이라 이름 붙여야 할까?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전적 용어인 카타르시스라고 칭해본다. 그런데 두 작가의 작품을 카타르시스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그 차이는 모차르트와 바그너만큼이나 다르다. 아그네스 마틴의 경우에는 '교향곡 41번(K. 551 주피터)'처럼 고전적인 조형성이 있으면서도 풍부하고 자유로운 선율로 방해물 없이 바로 신(神)에게 직진한다. 마크 로스코의 경우에는 탄호 이저처럼 강렬한 열정으로 세상의 모든 규정을 물리치나 결국 운명적인 비극에 의한 정화로 귀결된다. 현시대에 시선을 끌기 위한 의도를 품은 자극적이며 독특한 작품은 많지만, 카타르시스와 승고함을 선사하는 작업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아그네스 마틴의 삶이 작업처럼 밝고 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생애 마지막 30여 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나 '의 세상으로 돌아가, With My Back to the World' 로지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선불교의 명상을 캔버스 위에 실천하며 직관적인 세계를 펼쳐나갔다. 대부분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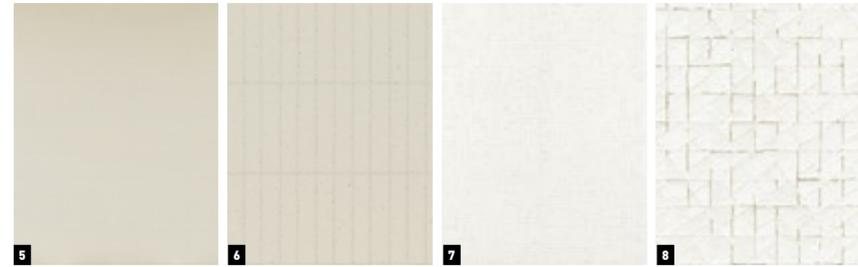


1 강릉 서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5. 4~8. 25) 전시. Photo by 고상연 2 아그네스 마틴, '무제 #9'(1990),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6 x 182.6cm, 휘트니미술관. © Estate of Agnes Marti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3 아그네스 마틴, '아기들이 오는(순수한 사랑 시리즈)'(1999),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52.4 x 152.4cm, 데이퍼뮤지엄. © Estate of Agnes Marti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은 캔버스 위에 연필로 그려진 선들과 부드러운 색조로 구성된다. 시각적 단순성에 정밀함이 더해져 더욱 순수하게 느껴진다. 얇고 균일한 선들은 캔버스 전체에 걸쳐 격자무늬나 평행선 형태로 배열된다. 그리고 나서 아크릴로 여러 겹 얇게 덧칠되고,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깊이감과 투



명성이 더해지며 신비를 자아낸다. 여기서부터 명상적인 품격이 배어 나온다. 하얀색 톤, 회색 톤 혹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사용이 절제되면서도 풍부한 감성을 자아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인식처를 제공한다.



4 미국 출신의 가장 아그네스 마틴 개인전과 더불어 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In Dialog: 정상화>(5. 4~8. 25) 전시 모습. ©서울미술관 5 아그네스 마틴, '나무'(1964),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90.5 x 190.5cm, 리움미술관. © Estate of Agnes Marti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6 5번 작품의 디테일. 7 정상화, '무제 2014-2-12'(2014), 캔버스에 아크릴, 고령토, 259.1 x 193.9cm. © 정상화,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8 7번 작품의 디테일. 9 백색의 깔끔한 자태가 돋보이는 서울미술관 외관. ©서울미술관 10 '소나무가 많은 고을'을 뜻하는 서울미술관에서는 강릉 시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Photo by 고상연

우는 것은 붓으로 지우고 그리는 행위와 같다. 일정한 격자는 정간보(井間譜)를 떠올리게 한다. 시간이 지워버리는 울림을 쓰고 또 겹쳐 쓰지만 결국 지워지고(시간에 의한 '쏟아내기'와 인간의 '메우기'), 희미한 장식은 부호의 흔적만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의 격자무늬는 '선'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잊힌 가락이 담긴 '주름'이다. 준법의 '준'은 '살이 터져 주름질 준, 살갓에 낀 때, 손가락 얼어 터질 준, 주름 잡힐 준' 등으로 신체성, 물체성이 기본이다. 개념적이고 이성적인 '주름'이 아니라, 기후나 환경 같은 외부가 신체 내부로 말려 들어오는 체험적, 물리적 감각적 '주름'이다. 질 들뢰즈(프랑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신체의 주름'이다. 이는 살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태양, 추위, 바람 등)와 부딪혀 발생한다. 주름은 감성과 체험에서 나온다. 좀 더 넓게는 물체나 인체에 접혀 있는 신체의 주름, 사회적 갈등인 '힘 관계의 주름', 지식이나 진실의 주름, 삶과 죽음의 한계에 관한 주름(Gilles Deleuze, <Foucault>, Éditions de minuit)까지 확장된다. 정상화는 "내 숨결을 그렸다. 나의 삶과 작품을 만든 계절, 그 날의 날씨와 공기가 섞여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작가의 신체성과 얽힌 시공간, 기억 등 모든 것이 집적되어 만들어지면서 정상화만의 독특한 '준법'이 형성됐다.

'선'과 '주름(준)'

●● 서울미술관은 아스네스 마틴과 함께 대화할 작가로 정상화를 초대했다. 그는 한국의 단색조 추상화회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은 흰색 톤에 명상을 불러일으키며, 반복된 격자 구조 등 비슷한 인상을 준다. 마틴은 '자연의 뒤(앞)의 뒷면 / 그늘이라 시원하다/ 승고하게 잠잠하다/ 순수의 미소_아스네스 마틴'를, 정상화는 '평면(캔버스)의 뒤를 추적한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나 비존재를 예상했다. 또 다른 '뒤'가 이어지며 무한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비슷한 인상에도 이들의 차이는 마치 '플루트와 대금만큼이나 다르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선'과 '주름(皺)'이다. 동서양 미술사에서 '점'과 '선'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만, 서로 다른 미학적 접근을 했다. 서양은 '선에, 동양은 '준(皺, 주름)'에 근거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線)이란 폭이 없는 길이다." - 유클리드기하학

준법(皴法, 주름皴)이란 산, 바위, 물 등 질감과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한 동양화 기법을 일컫는다.

아그네스 마틴의 '선'은 유클리드기하학의 정의처럼 폭이 없기에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서양미술이 발전되어왔고, 마틴의 작업도 이 선상에 놓여 있다. 마틴의 '어느 맑은 날'(1973) 연작을 보았을 때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은 잠시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알베르티의 베일(오브제를 측정하기 위한 격자창)'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작업을 상세히 살펴보면 미묘한 변화와 차이, 선의 간격, 색의 농도, 캔버스의 크기 등의 변형에서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어느새 격자무늬의 기하학적 패턴이나 선들은 '알베르티의 베일'처럼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각적인 명상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완벽한 균일성과 정밀하고 엄격한 작업 방식은 오랫동안 잊혀진 '명상'적인 품격과 경건한 품성을 상기시킨다. 정상화의 '주름'을 살펴보자. 그는 일본 고베 시절(1969~1976)에 격자형 단색조 회화를 시작했고, 파리 기간(1979~1992) 동안에 독특한 '쏟아내기'와 '메우기' 기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갔다. 그는 캔버스에 3~5mm 두께로 고령토를 펼쳐 바른다. 고령토가 굳으면 직접 만든 뾰족한 칼을 사용해 네모꼴로 뜯어내고, 그 자리를 유채나 아크릴물감으로 메운다. 무한히 반복되는 지독한 노동 집약적 방식이다. 작업 방식은 같지만, 뜯어내는 네모꼴의 모양이나 크기, 바탕 안료의 두께 등에 따라 각각의 작업은 다른 표정과 톤을 보여준다. 그에게 '쏟아내고 메



●●● 미술관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던 시절에는 전시를 꾸릴 때 여백의 사치를 부릴 수 없었다. 공간 자체가 귀하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내용물(작품)이 그릇의 용량에 넘치게 꼭꼭 누르듯 전시를 했다. 이제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아진 덕분인지, 작품 배치에도 여백의 미를 적용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술관 중에는 그것이 지나치게 화려한 나머지 오히려 그 안의 내용물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미술관이라는 하얗고 정갈한 도자기 그릇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당히 내용물이 담겼다. 현재의 많은 전시나 작품이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구성되는데, 아그네스 마틴과 정상화의 '다이어로그 전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담백했다. 그런데 그 여운은 오래 남아 잊히지 않고, 잊고 싶지 않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서울의 두 전시와 더불어 미술관(건축)의 3중주는 전시 제목 그대로 '완벽의 순간'과의 '대화'.

글 심은복 (미술비평가, SI영학감독)



1

Interview with 캐롤 허(Carol Huh) 큐레이터(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예술로 동시대와 공명하는 법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지하철역 앞 공터에 약 3m 높이의 조형물이 들어섰다. 출구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 백색 대좌(plinth)는 상단부가 텅 비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내 비밀이 밝혀진다. 일반적으로는 무언가를 위에 올려 전시하는 받침대가 되어주는 좌대가 오히려 수많은 작은 인물상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한 역사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일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재일까?



서도호 작가의 '공인들(Public Figures)'(1998~2023)은 지난해 설립 100 주년을 맞이한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National Museum of Asian Art, 이하 NMAA)의 커미션 작업으로, 지난 4월 공개되었다. 한동안 비어 있던 미술관의 프리어 플라자(Freer Plaza)에 새 작품이 설치된 것은 30년 만의 일이다.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공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도호의 '공인들'은 위대한 인물이나 평범한 여러 개인, 즉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4백여 명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이 전시된 내셔널 미술관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명소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약 170m 높이의 워싱턴 기념탑부터 링컨 기념관, 각종 전쟁 추모비까지 미국

을 상징하는 여러 기념비와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연방 공원 부지다. 이처럼 특정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헌정하는 기념비를 위한 장소에서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개대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공인들'의 목적인 존재감은 남다른 게 다가온다. 아시아 현대미술계 미술을 전담하는 캐롤 허(Carol Huh, 허경) 큐레이터는 (스타일 조선타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의 중심축에 설치될 첫 작품으로 서도호의 '공인들'을 선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도호의 작품은 아외의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미술관 관람객이 아니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작품을 보게 될 거예요. 미국의 수도이자 기념물의 도시인 워싱턴 D.C.의 도심 한가운데서 비어 있는 받침대를 마주하는 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누구를 기념하는지, 국가의 역사는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3

#국립아시아미술관(NMAA)이 전하는 한국의 현대미술

NMAA의 체이스 F. 로빈슨(Chase F. Robinson) 관장은 서도호의 작품 설치에 기념하며 열린 헌정식에서 "다음 세기에도 아시아 미술, 사회, 문화 연구의 글로벌 리소스로 기능하겠다는 국립아시아미술관의 미션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한국 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직을 신설하고 앞으로 한국 미술 컬렉션을 더욱 확장하겠다"라는 애정 넘치는 포부를 내비쳤다. 사실 NMAA는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다. 지금의 K-컬처 열풍이 일기 훨씬 전인 2004년에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작가 시리즈 'Perspectives'의 초창기 전시로 서도호의 개인전을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정연두, 임민욱, 미야모 주 등 한국 출신 작가들이 이



5

나 경험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역사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그 작가가 아시아 출신이라는 사실 이상의 무언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술관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NMAA는 서도호의 '공인들'을 5년에 걸쳐 전시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현대 작가의 작품을 선보여 프리어 플라자를 공공 전시 공간으로 꾸려 나갈 계획이다. 또 박찬경 개인전 이후에는 1970~2000년대 인도 사진 변화 기획전, 고려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다루는 한국 미술전 등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 현대미술 소장품을 추가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목표다. 그동안 미술관이 꾸준히 한국 미술을 다루었음에도 1만 점을 훌쩍 넘는 일본이나 중국의 소장품 규모에 비하면 현역 작가의 한국 소장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아마도 아시아 지역 중 한국의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일 테다. "미술관 소장품의 특별한 강점 중 하나는 사진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틀 안에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요. 현대 작가 중에서는 서도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아직 한 걸음만 뚝 떼고 볼까 합니다. 따라서 20세기와 21세기의 한국 미술 소장품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실질자의 비전 아래 NMAA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정부 기관, 재단, 예술 기관과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술관이 꾸준한 한국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국 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직을 신설한 데는 미 연방 정부와 민간 자립뿐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한국 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어쩌면 여러 이들이 모여 엄청난 무게를 조용히 견디는 '공인들'이 시사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지난 1백 년간 미술관을 이끌어온 이들의 보이지 않는 협력의 이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술의 보편성으로 모두를 연결한다는' 설립자의 비전을 담아, 이들이 들어 올릴 앞으로의 1백 년을 기대해본다. 글 김연우(뉴욕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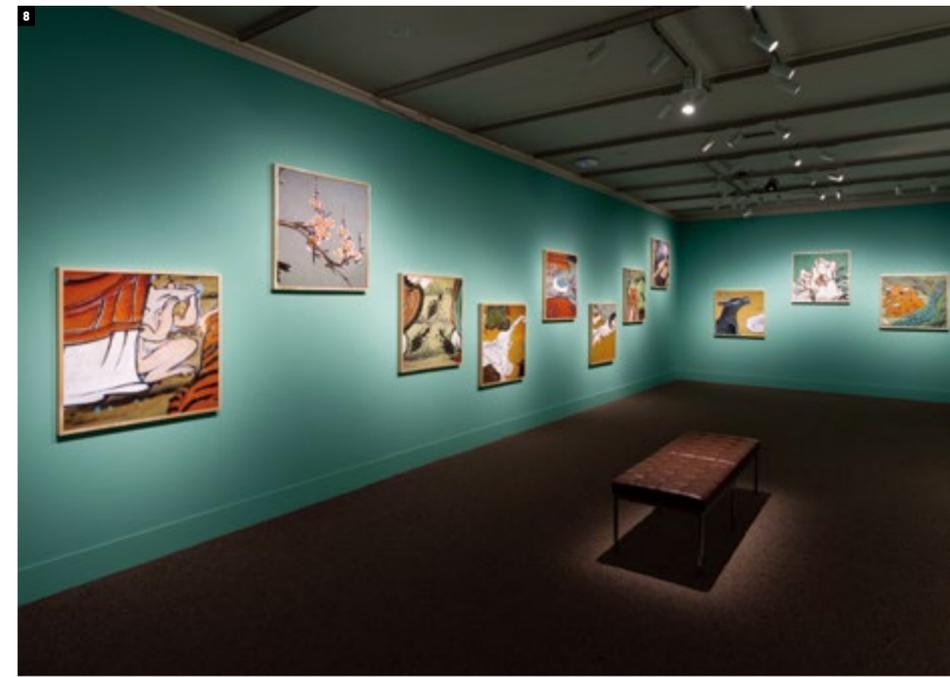
를 가져 갔다. '코리아 필름 페스티벌'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고, 작년에 새로 개관한 현대미술관 미술 갤러리의 첫 전시 주인공도 한국 작가 박찬경이었다. 1년에 걸쳐 진행되는(오는 10월 14일까지) 그의 개인전 (모임[Gathering])에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작품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는, 미술관의 확장된 전시 기획 미션이 돋보인다. 허 큐레이터는 '박찬경의 작품은 한국에 뿌리와 정조를 둔 특정 맥락에 대한 개인적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관련된 아이디어나 주제를 보편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며, 개별 공간에 따른 다양한 작품 배치와 미디어 작품에 적합한 현대미술 미술 전문 갤러리를 새로 단장함에 따라, 마침내 수년간 눈여겨본 그의 작업을 전시할 작가가 찾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박찬경의 '소년 병사(Child Soldier)'(2017~2018)는 기존 미디어가 조성한 북한 병사의 이미지를 전복하는 평범한 어린 소년병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쿠시마, 오토 레디오그래피(Fukushima, Autoradiography)(2019)는 원전 사고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과 사물의 이미지를 모은 그의 다뤄진 사진작업이다. "소년 병사를 본 일부 관객들은 특정한 맥락을 인식하면서도 아동 병사의 문제나 이미지가 어떻게 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지와 같은 더 보편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고 느낍니다. 후쿠시마, 오토레디오그래피는 단순히 특정한 재능이 아닌, 전 세계적 의미와 환경적 영향을 발휘하는 지역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전쟁과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이들은 특정 지역의 역사적인 한순간을 넘어 동시대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시사한다.

서구 중심의 미술계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점에서 NMAA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립자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름다운 이야기'라는 제임스 M. 휘슬러(James M. Whistler)의 믿음에 영감을 받아 사랑과 동양, 고대와 현재를 잇는 미술관을 만들고자 했다. "고대 근동과 중국에서부터 21세기까지 여러 범위에 걸쳐 있는 미술관으로, 기본적으로는 미술관이 다루는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험이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아시아, 또는 디아스포라에서의 개인적인 관점이



7

1 국립아시아미술관(NMAA) 프리어 갤러리 건물 일 서도호의 '공인들(Public Figures)'. Photo by 김연우 2 아시아 동시대 미술 아카이브 아트 큐레이터, 캐롤 허(Carol Huh). Photo by Robert Harrel. 3 자서전 '삼보'의 서로 다른 개인들이 힘을 모아 조각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Do Ho Suh's. 1982, South Korea, 'Public Figures'(1998~2023), Jesmonite, aluminum, polyester resin.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4 Fukushima, Autoradiography(2019), Single Projection video with sound, digitized 35mm photography, autoradiography, text, 24 min. Credit © Park Chan-kyong / Collaboration with Masamichi Kagaya and Satoshi Mori. 5, 8 최근 가을 새로 단장한 현대미술관 미술 전문 갤러리의 개관전 (박찬경: Gathering)의 전시 모습.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린다. Courtesy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Photo by Colleen Dugan 6 서도호 '공인들' 헌정식에 참석한 한국국제교류재단(KIC) 강민희 이사장과 국립아시아미술관 체이스 F. 로빈슨 관장. Special Dedication of Do Ho Suh's Public Figures (5.22.2024) Courtesy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Photo by Jennifer E. Berry 7 2004년 미술관에 전시했던 서도호의 '계단-IV'(2004) 설치 모습. Do Ho Suh, 'Staircase-IV'(2004), Translucent nylon and stainless steel tube, site-specific installation in the exhibition Perspectives: Do Ho Suh at the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Gallery, New York



8



2024 TEFAF 뉴욕 & 휘트니 비엔날레

부드럽게 일렁이는 변화의 바람

연초록 잎사귀와 피어나는 꽃송이가 서서히 도시를 물들이는 계절이 오면 봄은 마치 손길 같다(Spring is like a perhaps hand)'던 미국의 화가이자 시인 E. E. 커밍스(E. E. Cummings, 1894~1962)가 떠오른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봄은 어딘가에서 나와 여기저기에 낫선 것과 익숙한 것을 놓고, 이리저리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움직이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변화시킨다. 미술계의 관점에서 올해 뉴욕의 봄은 좀 더 역동적이었다. 지난 3월 막을 올린 휘트니 비엔날레가 일찍이 계절의 시작을 알렸고(오는 8월 11일까지), 5월 들어서는 프리즈(Frieze)를 필두로 1~54, 니다 등 여러 아트 페어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문을 열었으며, 차주에는 인디펜던트와 TEFAF가 바통을 넘겨받아 열기를 이어갔다. 이 기간을 농칠세라 옥션하우스에서는 메이저 경매를,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는 주요 전시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미술계 종사자들과 애호가들을 분주히 맞이했다. 세계 미술의 중심지에서 이렇듯 동시에 열리는 행사를 둘러보는 일은 늘 설렌다. 시장이 밀고 있는 트렌드와 컬렉터들의 취향부터 동시대 작가와 기획자의 관심사가 작품, 전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에 이만한 기회는 장이 없다.



1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아트 페어인 테파프 뉴욕 2024 전시장 입구. 고대 이집트, 로마의 조각상부터 본티지 가와 주영리, 현대 동시대 미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Photo by Alive Coverage. Courtesy TEFAF 2 뉴욕 7번의 갤러리 샵룸 94에서는 조지아 오키프의 가파른 친구이자 함께 추상화의 기반을 다진 레베카 샬스버리 제임스를 재조명했다. 사진작가였던 남편 폴 스트랜드나 모델 작업을 했던 일프레트 스트리글리츠의 그림에 그려졌던 여성 작가다. Rebecca Salsbury James, 'Shells on the Sand' (1935), Oil reverse painted on glass, 22.9x30.5cm. Courtesy Salon 94, New York. 3 테파프 뉴욕이 열린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 건물 외관. Photo by Parker Calvert Courtesy TEFAF



2

#고전적인 아트 페어의 진화 제10회 TEFAF 뉴욕(5.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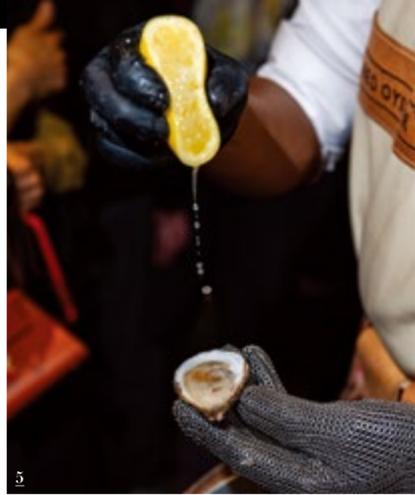
1백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파크 애비뉴 아모리 건물과 페어장 가득 봄을 채우는 화려한 생화 장식, 샴페인과 생굴을 즐길 수 있는 오이스터 바까지, 낯설 만큼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TEFAF(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이하 테파프)의 첫 인상을 짚고 굽게 표현하자면 '클래식의 전향'이 아닐까 싶다. 미술사 수업 시간의 슬라이드에서 봤음직한 고대 이집트 조각상 같은 고미술로부터 동시대에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의 작업까지 한눈에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리는 '배선계 슈퍼볼'이라 불리는 멧 갈라(Met Gala)에서 클로에 세비니가 착용해 화제가 된 아나 코우리(Ana Khouri)의 다이아몬드 골드 목걸이, 미드센추리 건축가 장 프루베(Jean Prouvé)의 빈티지 가구도 모두 예술의 맥락에 놓인다. 그야말로 장르를 초월하는 '미의 역사'가 담긴 장이다. 테파프는 이처럼 7천 년 미술사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부심을 갖고 '예술을 판매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이를 보존하는' 데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주체적으로 미술관 소장품의 보존복원을 지원하는 미술관 편드나 미술품 복원 전문 인턴십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페어 기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과 미술품 복원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토크를 선보인다. 원래 테파프 뉴욕은 현대 동시대 미술과 고미술로 구분된 두 번의 페어를 불과 가을에 별도로 개최했지만, 팬데믹 이후 이를 통합한 연 1회의 페어로 변경되었다. 본진인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와 뉴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차 기존의 전통을 벗어나 현대 동시대 미술로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같은 시기에 열



4

린 다른 아트 페어들에 비해 여성 작가의 작품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그동안 미국 미술사에서 저평가되었던 조앤 스나이더(Joan Snyder)나 레베카 샬스버리 제임스(Rebecca Salsbury James)를 재조명한 타테우스 로파와 살롱 94, 그리고 여성 작가들로 3인전을 꾸린 스프루스 마거스 등의 갤러리들이 있다. 아예 여성 작가의 작업으로만 구성된 살롱 스타일 초상화 전시 <Pictures Girls Make: Portraitsures>를 마련한 갤러리 블럼(Blum)의 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테파프 뉴욕의 디렉터 리앤 자그티아니(Leanne Jagtiani)는 "올해 달라들의 작품 선정은 미술 시장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뛰어난 여성 작가들의 존재감을 시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년간의 경매 기록에서 여성 작가의 작품 비중은 단 6%에 불과했으며(2023년 아트시(Artsy) 자료), 아트 페어에서의 판매 비율도 고작 2%에 불과했다(2019년 아트넷(Artnet) 자료). 이러한 미술 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작가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작품 판매를 강조하는 테파프의 행보는 고무적인 한 걸음이라 여겨진다.



4 갤러리 슈발(Galerie Chérel) 부스에 전시된 기원전 1550~1292년경의 고대 이집트 조각상. Photo by Julian Cassady, Courtesy TEFAF 5 페어장 한켠에 마련된 오픈스테이브. Photo by Jitske Nap, Courtesy TEFAF 6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한국계 작가 로타스 L. 강, 빛에 민감한 필름은 인공의 피부에 대한 은유로 작용한다. Lotus L. Kang, 'In Cascades'(2023). Photo by Filip Wolak



6

#한실의 고민을 비추는 창 제8회 휘트니 비엔날레 (2024.3.20~8.11)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ial)는 '실제보다 더 나은(Even Better Than the Real Thing)'이라는 부제에서부터 현재 직면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는 비엔날레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동 큐레이터 크리스시 아이리스(Christie Iles)와 메그 온리(Meg Onli)는 "현존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변곡점에 놓인 이 시대와 공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했다"라며, 특히 많은 작가들이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불안정성에 대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의 미국 사회 양상을 돌아보면 그리 놀랍지 않다. 전국적으로 반(反) 성 소수자 법안이 급증하고, 임신중절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1973)'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복되는 등 신체의 자율성이 정치와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유색인종, 원주민, 이민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배려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였다. 카르멘 위넛트(Carmen Winant)는 미국 내 임신중절 클리닉과 병원 관계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2천7백 장의 사진으로 전시장 벽 하나를 가득 채웠다. 이들의 집단 초상은 종종 피 흘리는 산모나 태아로 묘사되는 '임신중절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대신할 새로운 시각언어를 제안한다. 토크웨이스 다이스(Torkwase Dyson)는 테라스에 설치된 장소 특정적



7

작업은 관람객들이 직접 작품을 만지고 앉아볼 수 있는 촉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해방은 모든 단계의 움직임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작가의 신념을 은유적으로 내비쳤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자들의 인칭대명사를 공개 프로파일로 제공했는데, 작가군이 대체로 더 젊고, 국제적이며, 다양해진 경향을 보였다. 비록 조유의 일은 아니더라도(휘트니 비엔날레에서는 2010년 최초로 여성 작가의 참여 비중이 근소하게 더 컸고,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참여 작가의 대부분을 유색인종 여성 작가로 선정했던 바 있다) 전체 71명의 작가/팀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1981~1996년 출생의 이른바 MZ 작가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는 점은 단연 주목할 만하다. 직전 비엔날레에서 오히려 중년 작가를 대거 소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지역 스펙트럼 역시 더 넓어졌다. 본래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션 아래 시작된 휘트니 비엔날레는 점차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미국 미술의 범위를 확장해왔다. 올해 미국 태생의 작가는 53%에 불과하다. 영상 작업의 비중을 늘리고 미술관 밖으로 필름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 또한 흥미로운 시도다. 이를 위해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5명의 필름 큐레이터를 이례적으로 추가했으며, 스트리밍 플랫폼 MUBI와 제휴해 영상 작업 8편을 온라인에서 상시 상영하도록 했다.

야외 작품을 관람하러 테라스로 나가자 겨우내 차갑고 시렸던 강바람은 온데간데없고, 부드러운 온기만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다시 한번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겨울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더라도 결국 변화의 시간은 온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개인적으로 올해 비엔날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시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설치 작업이었다. 호박으로 제작해 중력과 온도에 의해 점차 녹아내리는 조각, 주변의 빛에 노출됨에 따라 색이 바래는 천장에 매달린 필름지, 무너져가는 검은 흙덩어리로 만든 백야관 파사드까지. 소재의 유동성을 내세운 이들 작품은 마치 현실을 비추며 끊임없이 진화해나가는 비엔날레의 속성을, 나아가 예술의 본성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은 관람객들에게 묻는 것만 같다. '실제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글 김연우(뉴욕 특필)

7 임신중절 클리닉 및 병원 관계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카르멘 위넛트(Carmen Winant)의 사진 작업 'The last safe abortion'(2023). Photo by Filip Wolak * 6, 7 Installation view of Whitney Biennial 2024: Even Better than the Real Thing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March 20-August 11, 2024) * 8 도시의 조각상에서 추출한 형태로 만든 에도 로도르도 피라리니의 조각, 무너진 작품의 뒤에 보이는 백야관 파사드는 지난 칼라프의 작품. Photo by 김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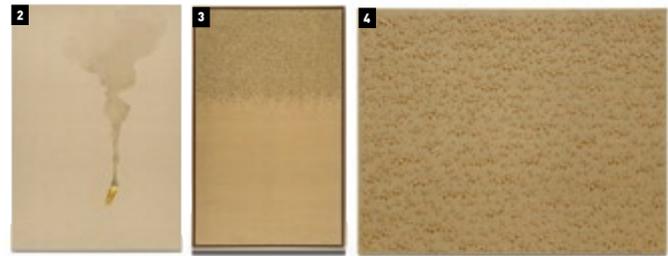
8

영화속 예술, 예술속 사유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응시하는 카메라, 김창열

“내 그림 중 하나를 뒤집어놓았는데 물을 부었더니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맺혔고 빛이 나면서 그림이 되었어.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말했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50여 년 동안 물방울 그림을 그려서 ‘물방울 작가’로 불리는 김창열 화가는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2022, 김오안브리지트 부이요 감독)에서 영화감독이자 자신의 둘째 아들이기도 한 김오안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오안, 브리지트 부이요 감독이 공동 연출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2021년 초에 작고한 김창열 화가를 다룬 섬세하고 날카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는 물방울이라는 매혹적인 모티프를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당대 가장 인정받는 예술가로 평가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전쟁의 상흔과 한국 역사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김오안 감독은 자신의 육성으로 들려준 내레이션을 통해 아버지의 물방울을 이렇게 정의했다. “아버지는 전쟁의 외상을 평생 품고 살아왔다. 또 자신의 화실에서 마치 연금술사처럼 오랜 세월 연구한 끝에 그가 본 모든 흐르는 피를 마침내 순수한 물의 원천으로 변형하기까지 평생 일했다.” 김창열은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 네 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사예를 배웠다. 이후 남한으로 이주해 이태대 선생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배웠다.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일제강점기와 독립, 한국전쟁 등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맞물려 있다. 갤러리현대에서는 김창열 개인전 <영통함을 넘어서>(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상영회(애무시네마)와 김오안 감독



1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2022) 포스터 이미지, 김창열 화가의 둘째 아들인 김오안 감독과 브리지트 부이요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했다.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영화사 진진 2 김창열, ‘물방울2012, 캔버스에 유채, 162 x 112cm. 3 김창열, ‘물방울’ 1973, 캔버스에 유채, 199 x 123cm. 4 김창열, ‘물방울 ENS 203’(1979), 캔버스에 유채, 182 x 227.5cm. ※ 2~4 Courtesy Kim Tschang-yeul Estate and Gallery Hyundai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1

온라인 GV를 진행했다. 김 감독은 온라인 GV를 통해 “촬영 과정에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묻고 싶었던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 어릴 때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는 어느 프랑스 아버지와 닮았다. 늘 침묵하는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에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던 달마데사 이야기가 등장한다. 달마데사는 잠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꺼풀을 베어버렸다. 김창열도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다. 김오안은 아버지에게 묻는다. “영화 마지막 장면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는 말한다. “맹... 산.” 맹산은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고향이다. 물방울의 애처로운 기원이 마침내 드러난 클로징이었다.

글 천수림(미술 저널리스트) /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영화사 진진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스크린인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팽팽한 음향을 곁들인 대형 스크린인 영화라는 매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이슈를 다루고, 첨단 기술을 되돌록 발빠르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은 물론 존재적론 사유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제7의 예술로 불리기도 하는 영화를 가리켜 누군가는 ‘인문학의 총아’라 했다. 하물며 당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예술가를 조명하는 영화는 그야말로 사유의 촉매제라 불리도 무방하지 않을까. 화면으로 그려낸 예술가의 모습이나 예술 자체가 창조적 여정의 면면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전시를 보거나 작업 세계를 파고들도록 하는 계기는 될 수 있다. 혹여 극장에서는 막을 내리더라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손쉽게 영상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1

그녀의 사계절을 따라가봐요, 조경가 정영선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숲은 숲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겨울에 아름다워야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다워”, 20세기 중반부터는 한국 개발사의 계획과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전 국토를 종횡무진 활약하다가 어느덧 80대에 접어든 고령에도 여전히 호미를 들고 전국을 누비는 조경가 정영선(1941~). 그녀에게 헌정된 다큐멘터리 영화<땅에 쓰는 시> 속 독백은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 할머니(윤여정 분)가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마치 그녀의 대사 사이로 아름다운 사계절의 풍경이 사라락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꽃처럼 다시 피고 지고 할 순 없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철학과 미학적 역량을 나이테처럼 쌓아가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으니 조금 위로가 되는 듯하다. <땅에 쓰는 시>는 대한민국 1호 여성 조경가로 선유도공원을 비롯해 우리에게 수많은 풍경의 미학을 선물해온 정영선을 은은하게 조명한다. “어린 시절에 나를 본 사람들은 내가 시인이 되기를 바랐어.” 어릴 적부터 선친의 친구인 시인 박목월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그녀는 펜 대신 풀과 꽃, 흙에서 영감을 받아 땅에 시를 써 내려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 과정을 보태자면 정영선의 작업이 곧 한국 조경의 역사라 해도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선친의 정원과 수목원이 그녀의 손을 거쳤다. 국

내 최초의 생태 공원 ‘여의도 셋방생태공원’(1997), 재활용 생태 공원 ‘선유도공원’(2002), 철길을 그대로 살리고 시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동네 텃밭을 조성한 ‘경춘선 숲길’(2016) 등 대중에게 친숙하고도 눈부신 장소부터 ‘오설록 티 뮤지엄’(2011), ‘북촌 철학사의 집’(2021), ‘청수 디올’(2022) 등의 ‘핫 플레이스’까지 그녀의 작품을 영화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정영선의 흔이 담긴 공간을 바탕으로 수직 경의 미학을 선물해온 정영선을 은은하게 조명한다. “어린 시절에 나를 본 사람들은 내가 시인이 되기를 바랐어.” 어릴 적부터 선친의 친구인 시인 박목월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그녀는 펜 대신 풀과 꽃, 흙에서 영감을 받아 땅에 시를 써 내려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다. 과정을 보태자면 정영선의 작업이 곧 한국 조경의 역사라 해도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선친의 정원과 수목원이 그녀의 손을 거쳤다. 국

의 수많은 중요한 공간이 정영선 선생님의 손길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운명 같았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절제미를 간직한 우리 땅의 풍경과 역사를 어떻게 지키고 복원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사라져가는 사계절의 풍미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느끼고 살게 하는 정영선의 조경 미학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전시 <이 땅에 속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에서 심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전시는 9월 22일까지). 글 김수진(프랑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 이미지 제공, 영화사 진진

1 <땅에 쓰는 시>는 정영선 조경가의 손길이 닿은 친숙하고도 눈부신 장소들을 충실히 담아낸다. 2 정영선 조경가는 영화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존의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장시켜 지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영화의 처음과 끝에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배치해 그 메시지가 더욱 외닿는다. 3 전시 <이 땅에 속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 중인데, 정영선을 만드는 것이 단순이 꽃을 심고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 자연을 보살피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그녀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아름다움을 위한 투쟁, 낸 골드인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하위문화가 트렌드의 정점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1990년대. 미국 사진작가 낸 골드인(Nan Goldin, 1953~)의 사진집 하나쯤 소장하고 있어야 ‘힙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우리는 무력해질 때마다 밤새 거리를 쓰다니며 예술가들의 아지트를 찾거나 그들의 영화라도 봐야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 <셀벳언더그라운드>를 보고 조이 다비전의 노래를 듣고 낸 골드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당시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등을 배경으로 젠더에 대한 개념과 그녀 주변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문화 예술계 인물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낸 골드인의 사진은 마치 한 시대의 순수한 목격자처럼 진실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통해 LGBT 커뮤니티, 에이즈, 약물중독 등 사회적 금기로 여겨진 이슈들을 직면하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했다. 마쓰다와 헬무트 랭의 광고사진을 찍는 등의 활약을 하던 그녀는 마침내 1996년 미국 워튼 미술관에서 회고전 <나는 당신들의 거울(I'll Be Your Mirror)>을 개최하며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대열에 오르기 시작한다. 물론 지난해 고고 시인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아트 리부 파워 100’ 1위에 선정되기도 하며 여전히 ‘현대진행형’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요즘 낸 골드인은 ‘예술가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류 사회에서 이탈한 문화와 집단, 수직스럽게 여겨지는 대상을 끌어안는 일을 넘어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선언을 세상에 던지고 있다. 2022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다큐멘터리



1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사진은 나의 유일한 언어였다. 나는 생생하게 반짝이는 뉴욕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했고,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이제는 내 모든 명성을 걸고 거대 제약 회사에 맞서 싸운다. 생존과 투쟁의 기록이 담긴 나의 일기장을 당신에게 펼쳐 보인다.”

리 영화 <낸 골드인,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감독 로라 포이트러스)에서 작가는 직접 자신의 삶, 예술, 투쟁,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타인의 고통에서 이익을 취하는 막강한 세력과 싸우는 치열한 과정을 보여준다. 중독성 강한 진통제 우시콘틴의 피해자이기도 한 낸 골드인은 2017년 P.A.I.N(치방 중독 즉각 개입)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너그러운 자선가처럼 활동하는 새클러가(약물중독으로 이익을 취한 제약 회사 파듀 파마의 오너 집안)를 고발한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녀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부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새클러 집안의 기부금을 받은 세계 각지의 예술 기관을 찾아다니며 새클러라는 이름을 내리기 위한 시위를 벌인다.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이



2



3

1 낸 골드인은 라이언 맥킨리, 자비에 들란 등에게 영향을 끼치며 여전히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손꼽힌다. 2 낸 골드인은 1980년대 퀴어 커뮤니티, 에이즈, 약물중독 등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함께 그들의 사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사진에 담았다. 3 낸 골드인은 2017년 말, 막강한 세력인 새클러의 싸우기 시작했다. 낸 골드인은 이 활동에 관한 여정을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고, 로라 포이트러스 감독을 만나며 <낸 골드인,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가 제작되었다.

“인생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낸과 같은 사람은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듯 이 영화는 낸 골드인의 인생에 걸친 도전과 투쟁, 그리고 사진 작품 속으로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다. 글 김수진(프랑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이미지 제공, 영화사 진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하는 유이치 히라코



1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된 체계로 인지하는 이분법적 시각은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왔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것처럼 인류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태도에서 벗어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세계에 눈뜨고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꾀한다는 논지의 콘텐츠는 사실 동시대의 첨예한 이슈를 아티스트의 관점과 스타일로 들여다보는 비엔날레 같은 미술제에서는 한동안 자주 다뤄졌다. 3년 전 가을, 부산 일광해변에서 펼쳐진 2021 바다미술제의 주제 역시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Non-/Human Assemblages)’였던 기억이 난다. 당시 미술제의 무대가 바다가 아니라 숲이었다면(어쩌면 그대로 바다였더라도) 일본 작가 유이치 히라코(b. 1982)의 설치 작업 역시 잘 어울리지는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의 고향은 신칸센(SR)으로 서쪽 끝으로 가이만 나오는 오카야마현인데, 절

디절은 녹음이 겹겹이 드리운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자연미 가득한 지역이다. 어린 시절 5km 거리를 걸어서 등교하고 귀가할 때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홀로 돌아오곤 했다는 유이치 히라코는 동식물이 생태계 순환의 구심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획일적인 교과과정이 맞지 않아 런던(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대학 시절 도시의 녹지대와 인터리어용 식물까지 인간의 정신적 위안에 치우쳐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주시하게 됐고, 이는 그의 작업 근간을 이루는 중심 주제로 발전했다. 선악의 잣대를 들어대거나 개척과 극복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자연을 ‘전체로 바라보는 심층 생태학의 관점’과 연결된 태도라고 한다.

곰과 다채로운 색의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귀염성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의 회화는 언뜻 보면 예쁘장한 판타지 동화를 닮은 듯도 하지만, 사실 생태계의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관계성을 표현하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대립, 대항적 구도가 아니라 모두가 전체를 이루고, 저마다가 그 일부인 커다란 세계와 더불어 그 속에서 각자의 여정을 꾸려나가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 같은 정서가 묻어나는 듯하다. 무자르듯 하는 ‘펜 거르기’의 의미가 시들해지는 세계관이다. 인간의 몸과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얼굴 없이 사슴뿔 모양의 나뭇가지가 달린 ‘나무 머리’를 뒤집어쓴 ‘트리맨’이라는 작가의 상징적 캐릭터는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추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 마곡동에 있는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린 유이치 히라코의

개인전을 접했기 때문일까. 울퉁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2024)라는 영화를 보고는 이 알송달쑹한 매력의 ‘트리맨’ 캐릭터가 떠올랐다. 일본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캠퍼장 개발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기업과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일본 영화감독의 작품답게 정적인 기조로 흘러가지만 점차 ‘속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듯한 파도를 선사하는데, 대자연의 질서에 포함된 인간이란 존재와 선악의 실체에 대해 곱씹게 만든다. 마침 자신의 전시(갤러리바톤) 오프닝을 위해 서울을 찾은 유이치 히라코를 만나 물어보니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했지만(꼭 챙겨 보겠다고 했다) 그 역시 웃으며 “어느 편도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글 고성연

1 지난 6월 5일 시작해 7월 13일까지 서울 한남동 갤러리바톤의 전시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개인전 <New Home> 방문자 서울을 찾은 유이치 히라코. 자연, 동식물, 인간의 공존과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입체적 탐구를 하는 그의 작업 세계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화재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한다. Photo by 고성연 2 유이치 히라코, ‘Lost in Thought 1102023, Acrylic on canvas, 194 x 259cm. 이미지 제공, 갤러리바톤



2

Exhibition in Focus

떨러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몰입하는 순간 얻게 된다. 미추하고 싶지 않은 고독한 인간의 감정을 평생에 걸쳐 탐구해오거나 작은 꽃을 심는 행동에서 울창한 정원이 탄생하는 등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작업 과정을 떠올리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따뜻한 위로를 건네받기도 한다. 삶을 완성해가는 여정에서 마음의 안식처와 자양분이 되어줄 전시와 책 소식을 전한다.

교육속 절규 너머 외치는 생의 외한 예술의전당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

노르웨이 화가이자 판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고통 등 다례로운 인간의 감정을 탐구해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감으로 담아내 일평생 무수히 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뭉크의 생애를 색선 1번부터 14번까지 테마별로 구성된 동선이 특징이다. 먼저 초반 시절을 보낸 크리스티아나(현 오슬로에서 소박한 풍경과 인물을 향한 관심을 담은 초)작을 시작으로 그의 '생의 프리즈' 시리즈 중 가장 상징적인 모티프이자 남녀의 사랑과 이별, 우울, 깊은 절망 등 개인성을 잃는 대표 연운 것들을 표현한 키스(The Kiss)를 만나볼 수 있다. '목욕하는 여인들(Women in the Bath)' 작품을 통해 회화와 사진에 몰두했던 그의 스타일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절규(The Scream)와 불안(Anxiety), 병든 아이(The Sick Child) 등을 통해 그가 겪은 감정인 공포와 죽음을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벌목지(Felling Area), 마돈나(Madonna) 등 여러 작품과 작품의 주제이거나 기법인 풍경, 여성, 초상화, 목판화, 그리고 말년의 자화상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그림들 이외엔 자식이 없다는 뭉크의 열대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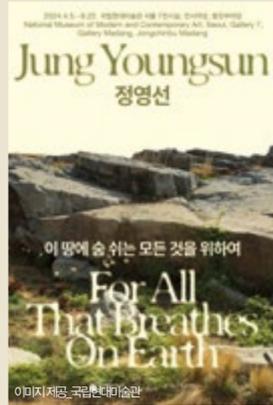
전시 기간 9월 19일까지 문의 munchseoul.kr



원주시에 상륙한 일록달록한 수도승 뮤지엄 산 <우고 룬드노네 개인전: BURN TO SHINE>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스위스 출생 우고 룬드노네의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 뮤지엄 산의 기존 전시 공간인 청초 갤러리 전편은 물론 백남준관, 그리고 야외 스톤가든까지 무대를 넓혀 우고 룬드노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200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스위스 국가관을 대표해 참여하기도 한 작가는 회화적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하며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화부터 드로잉, 조각, 설치미술, 영상 등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도승 수도승(Nuns+Monks)' 시리즈를 대표하는 조각부터 일록 달록 풍경을 회화로 담아낸 '매티튜(Mattluc)', 그리고 67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구성된 영상 작품 '번 투 샤인(Burn to Shine)'(2022)까지 4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3세부터 12세까지, 1천여 명의 원주시 어린이들과 함께 협업해 선보인 작품 '나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태원의 나이(Your Age and My Age and the Age of the Sun)'(2013~현재)와 '나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달의 나이(Your Age and My Age and the Age of the Moon)'(2020~현재)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태원과 달이 전시 공간들 가득 채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 기간 9월 18일까지 문의 museumsan.org



1960~70년대 구상회화를 재조명하는 전시 <MMCA 기증작품전: 1960~70년대 구상회화를 각각 8월 4일, 9월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8월 4일, 9월 22일까지 문의 mmca.go.kr

김이불루 화이불차(儼而不莊 華而不侈)
국립현대미술관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등
한국 최초 여성 조각가 정영선의 반세기 가 걸친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개인전이 서울관(하) 1층, 7전시실, 전시마당, 중천부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울림미술관조각공원(1988), 대전 엑스포 '93(1993, 1999), 여미도갯강생태공원(1997, 2008), 선유도공원(2002) 등 국가차이민간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의 대표작을 소개하며, 전시마당과 중천부마당에 조성된 조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덕수궁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자주 조각와 작품을 소개하고 미술사에 등장했던 자주기 사대에 따라 아랍계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한국 근현대 자주: 태양을 전으로라는 새들> 전시가 오는 8월 4일까지 계속된다. 과천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유류로 구성된 전시가 진행 중이다. 1층, 1원형 전시실에서 소장 사진 1천3백16여 점 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풍경을 다룬 사진 2백여 점을 선별한 뒤 다시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선보이는 <MMCA 사진 소장품전: 당신의 세상은 지금 몇 시?>와 한국 구상회화의 형성과 성장에 자원분이 된

우리 삶과 가리 위에 탄생한 건축 7행 서울시립미술관 <길드는 서로들> 등

올해 전시 타이민 건축을 바탕으로 선보이는 전시들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남서울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길드는 서로들> 전시는 회화, 영상,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7인이 건축의 본질적 속성을 관계 맺기로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개인과 공동체 등 여러 요소를 연결해 40여 점의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서문문관에서는 세계적인 가장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전시 <미래공간: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를 7월 2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는 <서울: 서울, 어디에나 있고 이루어도 없는 강홍구의 서울> 전시가 8월 4일까지 펼쳐진다. 강홍구 작가가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서울 지역 일부를 관촬하며 재빨리 과정을 드로잉, 사진, 영상 등으로 담아냈다. 북서울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1, 전시실1에서는 기획전 <영혼은 오늘 같이 많이 8월 4일까지 개최된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위그와 필리 페레노는 기상의 캐릭터 연인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주체로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회화, 영상, 사운드 등으로 풀어내 전시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다.

전시 기간 7월 7일까지 문의 sema.seoul.go.kr



현대미술의 연금술사 롯데뮤지엄 <다니엘 아샴: 서울 3024>

'상상의 고고학(fictional archaeolog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을 인스타그램과 전사로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며 스타 작가로 거듭난 다니엘 아샴. 지금으로부터 1천 년 후인 3024년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그의 작품 2백50여 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다니엘 아샴: 서울 3024>가 7월 12일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다니엘 아샴은 조각, 건축, 드로잉, 필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업하며 티파니, 다울, 포르세, 아다마스, 리모와 등 세계적인 빅 브랜드와 협업을 맺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현대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아티스트 더 워런드, 파렐 윌리엄스와 함께 작업하며 음악계에서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렇듯 자신만의 다른 관점으로 작업을 진행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1천 년 후 미래에 유물로 발굴된 작품'이라는 테마 아래 독특한 시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한 고전 조각 시리즈와 포켓몬(Pokémon)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공개한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신작 페인팅과 드로잉, 그리고 유전자 발굴 현장을 재현한 대형 설치 공간도 선보여 관람객은 그의 세계관에 들어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7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문의 lottemuseum.com



서유럽 문화 예술 신력 <문명>

국내에서도 애독자들을 다수 보유한 <다른 방식으로 보기>의 작가 존 버가가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한 영국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1903~1983). 고고인 필 클라크는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내셔널 갤러리 관장으로 발탁된 당대의 엘리트이자 예술 후원자였다. 버가는 그의 관장을 지켜보게 알트르자라리안에서 정서적이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유럽 남성 위주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는데, 소아시아에서는 비로 그런 이유에서 케네스 클라크를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언차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혼돈이 팽배했던 20세기 전 반부를 유럽에서 보낸 클라크는 상상적인 외적 위험과 내적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부단히 전개된 예술적 재생 운동에 정신적 사수를 두면서 '문명에 대한 믿음은 끝내 가두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추함과 아름다움의 관념이 명확하던 시절에도 이미 예술의 사상은 양극을 오갔음을 짐에너며 서양 문명의 양극성에 주목했다. 문명이 무엇인가?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난 질문에 대한 고찰을 서유럽 문화 예술 신력을 하듯 흥미롭게 담아낸 <문명>은 클라크가 1969년 진행한 BBC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단행본으로 엮어낸 결과물이다. 서문에서 직접 방영된 TV에는 매체의 특성상 일방적인 대화처럼 리듬을 잡아 했는데, 실제로 책에서도 마치 도시 기행을 곁들인 강연을 듣는 듯 친숙하고 쾌활한 분위기가 문체가 가득성을 높여준다(번역도 경이로써 진행됐다).

장가 권8권(44496쪽, 반양판장 소조사가 펴냄)

Remember the EXHIBITION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지만, 계절의 변화와 달리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우리네 일상에서 관태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이 어디론가 떠나기가 여의치 않다면, 몸도 시원해지고 사igo도 탁 트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트 스페이스'를 염두에 둘 법하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막을 올릴 전시 콘텐츠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해외 작가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전시부터 오감을 충족시키는 미디어 아트까지 다채로운 전시 소식을 모아봤다.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 <셰일라 Hicks: 착륙>

존재감 넘치는 텍스타일 작업으로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경계를 허물어온 미국 출신의 가장 세일라 Hicks(Sheila Hicks),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의 여섯 번째 전시로, 재단 컬렉션의 일부이자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착륙'(2014)과 '벽 속의 또 다른 틈'(2016)을 만나볼 수 있다. 무료 관람이 며사천 예약을 권장한다.

전시 기간 9월 8일까지 문의 louisvuitton.com



페이스갤러리 서울 <라티파 에사크: Latifa Echachhch: Les Albatros> 등

스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라티파 에사크의 아시아 첫 개인전. 이번 전시는 5점의 신작을 선보이는데(1층), 오늘날 풍경을 그리는 것이 무엇일지 의미하는 것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올려놓은 형태로 놓인 캔바스의 뒷면을 보도록 유도하는 설치 방식은 주변 환경과 작품이 상호 작용하면서 자연과 인공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일본 작가 오자키 텐지로의 국내 첫 개인전 <Form at Now and Later 形而の而今而後>도 펼쳐지고 있다(2, 3층). 이번 전시는 시공간인 인지 경험을 통한 그의 탐구를 회화와 조각품으로 조명한다.

전시 기간 8월 17일까지 문의 pacegallery.com



송은문화재단 <나탈리 뒤버그&한스 버그 개인전: Beneath the Cultivated Grounds, Secrets Await>

제63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젊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은사자상을 수상한 나탈리 뒤버그와 스웨덴 출신 작곡가 한스 버그,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전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자 애는 여정을 담았는데,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 기간 7월 13일까지 문의 songeun.or.kr



갤러리 느와 <스튜디오 신유 개인전: 구성의 해체>

지난 5월 국내 1세대 디자이너 브랜드 '송지오'가 새롭게 문을 연 아트 패션 공간 '갤러리 느와'의 두 번째 전시. 가구, 설치, 공간 미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스튜디오 신유와 만나 <구성해체> 전을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은 반역이다'라는 독자적인 디자인 철학을 지닌 신유는 갤러리 공간을 흑과 백, 안과 밖 등 대비되는 여러 키워드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체로 만드는 과정을 공간에 녹여냈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상시 운영하며 무료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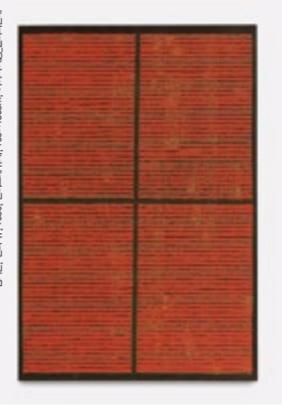
전시 기간 7월 28일까지 문의 songzio.com



디스트릭트 <re SOUND: 울림, 그 너머>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이븐페 뮤지엄을 설립한 디스트릭트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문화역서울284 내 8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4D 사운드, 키네틱 사운드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를 선보였다. 대중과의 예술적 소통을 위해 국내외 아티스트 팀과 협업을 맺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district Art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한 전시다. 전시는 홈페이지에서 예약된 뒤 무료 관람 가능하다 서울역 1번 출구를 지나게 된다며 들려보기를 권장다.

전시 기간 8월 25일까지 문의 artproject.district.com



갤러리현대 <김기린: 무언의 영역> 등

단색화의 가장 김기린 화백이 작고한 후 국내 첫 개인전. 김기린의 회화 작품을 화면에 그려진 시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며 단색조의 화폭 너머 그가 궁극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창작자와 예술적 소통을 위해 국내외 아티스트 팀과 협업을 맺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district Art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한 전시다. 전시는 홈페이지에서 예약된 뒤 무료 관람 가능하다 서울역 1번 출구를 지나게 된다며 들려보기를 권장다.

전시 기간 7월 14일, 8월 3일까지 문의 galleryhyundai.com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 <권순의 개인전: 나의 오늘>

오랜 시간 수행하던 캔버스에 다채로운 색조의 물감을 겹겹이 발라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를 담아내는 권순의 작가의 개인전 <나의 오늘>이 열리고 있다. '점' 요소를 강조한 '무아(無我)' 시리즈, '선'과 '면'을 돋보이는 '작연(積 研)' 등 시리즈 같은 추상 연작, 기어를 주제로 사용한 설치 작품까지 그의 작품 세계 찬란을 이루는 전시로, 30년 넘게 이어져온 창조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기와 설치 작업에서는 흑연을 문지르고 반복적으로 기와에 덧칠해 질감을 강조하는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자, 빛 등의 요소를 작가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붓 터치로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사적인 여운을 선사하며 마음속 깊이 내재된 풍정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7월 21일까지 문의 whitestone-gallery.com



마이아트뮤지엄 <새벽부터 황혼까지-스웨덴국립미술관과 마이아트뮤지엄이 손잡고 스웨덴 국립 화가로 불리는 칼 리르손을 비롯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약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대표 작가들의 작품 79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시이며, 미술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스웨덴 여성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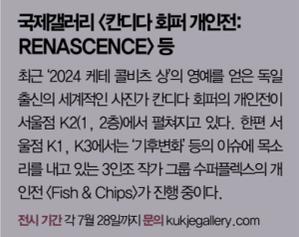
전시 기간 8월 25일까지 문의 myartmuseum.kr



수원시립미술관 <올리비에 드브레: 마인드스케이프>

프랑스를 대표하는 추상화가 올리비에 드브레의 대규모 개인전이 7월 9일부터 열린다. 1941년 10월 프랑스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수많은 전시를 연 그가 자연의 모습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인상을 담은 '회색의 세계-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림자, 빛 등의 요소를 작가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붓 터치로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사적인 여운을 선사하며 마음속 깊이 내재된 풍정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기간 7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의 suma.swon.go.kr



전시 기간 7월 28일까지 문의 kukjegallery.com

할라르, '인선', 1880, Oil on canvas, 70x46cm, OPHI KEE PHOTOARTS